

Vol. 13 | 2021 SPRING 티처빌 매거진

Zoom in Focus

설립 20주년 맞은 테크빌교육,
교사·학생·학부모 연결하는 에듀테크 서비스가 목표
인공지능 시대, AI 보조교사 활용하는 아이언맨 교사가 되자

Class Know-How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학교의 오늘과 내일
온라인 수업,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자
학생이 꿈을 찾고 이루도록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Hot EduTech

일상에서 수업으로 들어오는 인공지능 교육

Interview & People

"2021년에도 온라인 수업은 지속할 것"
인공지능, 세상(A World)과 나(I)를 잇는다

Teacher Life

타로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볼까요



COVER STORY

쌤하!!

선생님들의 친구 '쌤구' 인사 드립니다.

올해도 선생님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다양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2021년 쌤구와 함께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많이 기대해 주세요~!



행복한 교사가 행복한 교육의
씨앗을 피울 수 있도록
티처빌이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티처빌 매거진

《티처빌 매거진》은 최신 교육 이슈 및 동료 교사의 수업 노하우, 학교 현장의 다양한 소식과
더불어 테크빌교육의 브랜드 이야기를 담은 사외보 계간지입니다.

2021년 티처빌 회원등급에 따라
티처빌 VIP 선생님 가운데 매거진 구독신청을 하신 분들께
연 4회 《티처빌 매거진》 인쇄본을 무료로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웹진으로도 《티처빌 매거진》을 더욱 편리하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티처빌 웹진 바로가기



티처빌 매거진은 환경부가 인증한
친환경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학기 준비

새로운 학교, 교실 친구, 선생님.

새로운 업무, 수업, 동료교사, 학생.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새 학기는 언제나 설렌다.

함께할 우리를 상상하며, 교실 정리, 수업 준비.

작공이 없던 작년. 올해는 작공을 만들어주고 싶고

더 많이 함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너희를 볼 날을 기다리며 봄날을 기다린다.

사진. 강지현 석우중학교 선생님
촬영장소. 비전중학교 교실

CONTENTS

Vol.13 | 2021 SPRING



Zoom in Focus

- 06 설립 20주년 맞은 테크빌교육,
교사·학생·학부모 연결하는 에듀테크
서비스가 목표 · 이형세
- 10 인공지능 시대, AI 보조교사 활용하는
아이언맨 교사가 되자 · 정제영

Class Know-How

- 14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학교의
오늘과 내일 · 노정서
- 18 온라인 수업,
'혼자' 하지 말고 '함께'하자 · 김진영
- 20 미디어 사회의 주체 의식 심어주는
쌤 크리에이터 · 이상권
- 24 학생이 꿈을 찾고 이루도록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 정미라

Hot EduTech

- 28 일상에서 수업으로 들어오는 인공지능 교육
· 김상훈

Interview & People

- 32 “2021년에도 온라인 수업은 지속할 것”
치열하게 준비하고 설레는 한 해 만들었으면...
· 손지선

발행처 테크빌교육(주)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551,
5·6·8층(역삼동, 프라자빌딩)
T. 02-3442-7783
F. 02-3442-7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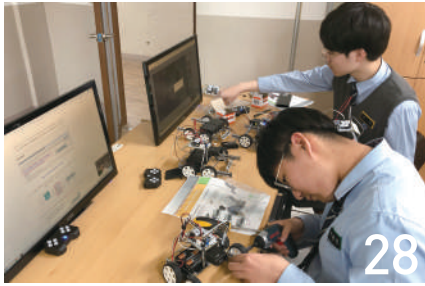
발행일 2021년 3월 18일 통권 제13호

발행인 이형세

기획·편집 테크빌교육(주) 홍보팀
티처빌 매거진 TF

원고문의 02-3442-7783(136)
jylee@tekkville.com

디자인·인쇄 (주)태산애드컴
T. 02-2268-2488



28



38



52



56

- 36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 신건철
- 38 인공지능, 세상(A World)과 나(I)를 잇는다
• 신태섭

Teacherville News

- 40 언론에 비친 테크빌교육
- 42 쌤들의 학습공동체, 쌤학공이 온다
- 44 테크빌교육의 스무 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 48 2021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 50 신규과정

Teacher Life

- 52 “무엇이든 물어보 쌤”
타로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볼까요
• 정무훈
- 56 유튜브 먹방 채널, <먹스테이> • 허태련

Book

- 60 수업 잘하는 교사는 루틴이 있다/
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애니한 + 윤희쌤의 한글 익힘 컬러링북
유라 + 참진쌤의 자연 친구 컬러링북
에그박사 + 가람쌤의 곤충 탐험 컬러링북

Cartoon

- 62 학교에 간 서니쌤 • 정은선

설립 20주년 맞은 테크빌교육, 교사·학생·학부모 연결하는 에듀테크 서비스가 목표

인터뷰. 이형세 테크빌교육(주)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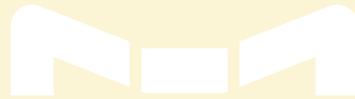
우리나라 이러닝(e-Learning) 산업의 선구자로서 공교육 분야에서 교사연수, 학생교육, 부모교육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는 테크빌교육(주)이 올해로 20주년을 맞았다. 10년도 채 안 돼 사라진 수많은 기업을 생각하면 20년 업적을 자축할 만도 한데, 테크빌교육 이형세 대표는 “20년 동안의 업적을 자축할 것이 아니라 20주년을 새로운 20년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과연 스무 살의 테크빌교육은 어떤 변화와 도약을 꿈꾸고 있는 것일까.

'공교육 하면 망한다. 시장이 없다'라던 시절 창업

2001년 2월, IT 1세대 벤처인 터보테크에서 분사 후 이러닝 시장에 주목하며 회사를 창업했다. 공교육도 ‘수요는 있는데 시장이 없다’라고 생각해 이듬해 ‘티치빌원격교육연수원’을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했다. 이후 교사 원격연수를 중심으로 공교육지원 전문기업을 표방하며 성장해 온 테크빌교육이 지난 2월 창립 20주년을 맞았다.

교사-학생-학부모 연결하는 에듀테크 서비스가 목표

걸어온 20년을 되돌아보며 자축하는 것도 좋지만, 지난해와 같이 급변하는 환경에서는 향후 20년 후의 청사진을 그려보는 것이 절실했다. 많은 고심 끝에 우리만의 강점을 더욱 살려 올해부터는 60만 교사 대상 원격교육 서비스를 앞으로 600만 학생, 1000만 학부모 서비스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교사 원격교육원수원 ‘티치빌’을 중심으로 교사·학생·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전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교사-학생-학부모로 연계되는 에듀테크 서비스 원년이다.



올해 매출 400억 원, 지난해 두 배 기대

올해 매출 목표는 400억 원이다. 지난해 매출 규모에서는 갑절 상당 규모다.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30% 성장하면서 자신감을 얻었다. 2019년 가상현실(VR) 기술 등 선제적 투자로 생겼던 적자도 흑자로 전환했다. 주요 성장동력은 티처빌과 티처몰이다.

4개 사업부로 조직 개편… 역량 극대화

회사 구조도 각 사업부 역량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편했다. 올해 티처빌, 에듀커머스사업부(티처몰), 에듀테크연구소, 미래교육사업부 4개 사업부로 나눠 '독립채산제'에 준하는 자율성과 책임을 부여했다. 각 부서장을 대표로 하고, 예산·인사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의 지속 혁신을 위해 대표의 역할도 '조력자'로 낮췄다. 좋은 인재가 와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필요하다면 분사할 수 있는 구조로 조직변화를 시도하는 중이다.

교사 원격교육연수원 '티처빌' 중심으로

지난해 티처빌연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온라인 학습자가 크게 늘었다. 또 교사 중심 콘텐츠 오픈마켓 '쌤동네'를 열면서 새로운 가능성도 확인했다. 올해 교사 전문학습 공동체를 위한 북러닝 구독 서비스



약력 이형세

- 테크빌교육(주) 대표
- 2014 대한민국 ICT INNOVATION 대상 표창(철강산업협회)
- 제38회 과학의 날 과학기술유공자 표창(대통령상)
- 前 제4~6대 (사)한국이러닝산업협회 회장
- 前 KERIS 교육정보화포럼 위원
- 前 스마트러닝포럼 운영위원장
- 前 ㈜터보테크 창립멤버 부사장



‘쌤북’도 시작한다.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교사와 교육 지원 밀착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AI 기반 수업저작도구 ‘클래스메이커’ 출시

야심차게 준비해온 인공지능(AI) 기반 교사를 위한 수업저작도구 ‘클래스메이커’도 올해 출시할 예정이다. 수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맞춤형 자료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으로 사용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쌓여 서비스가 정교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수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술이 교육에 빠르게 접목되고 있지만, 여전히 교육 서비스 중심은 교사라고 생각한다. 학습하면서 교사와 학생이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진짜 ‘에듀테크’다.

신성장동력, 티처몰의 활약 더 커질 것

이러한 철학과 코로나19라는 상황에 힘입어 티처몰은 지난해 이용자 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약 70% 성장하면서 테크빌교육의 새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최근 당 일배송 시스템을 시작하면서 더 탄력을 받고 있다.

티처몰은 올해 교사와 교육 지원 플랫폼으로 본격적으로 진화한다. 사업부 이름도 에듀커머스 사업부로 변경하고, 쇼핑몰을 넘어 교육 전자상거래 사업자로 나선다. 최근 학급과 학급 간 또는 학교와 학교 간 이사 대행 서비스를 론칭하기도 했다. 벌써 선생님들의 기대가 크다.

에듀테크 서비스로 부모·학생 교육까지

한편 ‘부모공감’, ‘키즈티처빌’이라는 영유아 교육 플랫폼을 통해 영유아 교사 교육은 물론 유치원, 어린이집과 연계한 부모 대상 교육 및 부모 코칭 서비스도 제공하고, 학생 체험 교육브랜드 ‘즐거운학교’를 통해 수학·정보·기술·메이커교육을 중심으로 한 창의 체험 활동을 온라인 스쿨로 선보일 예정이다. 교사-학생-학부모로 연계되는 에듀테크 서비스 기업으로 사업을 확장한다.





K-에듀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도 진행

사업 변화를 다각적으로 꾀함과 동시에 교육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K-에듀 통합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도 맡아 진행 중이다. K-에듀 통합플랫폼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원격수업플랫폼으로 학생 학습 데이터 기반 맞춤형 교육 서비스의 시대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떤 기술이든 이를 활용하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도교육청 대상으로 설문 조사는 물론 교육 현장 목소리도 구체적으로 수집·반영해 최근 구체적인 목표 모델 수립 작업을 시작했다. 모든 작업을 올해 6월까지 완료 예정이다.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최첨단기술 교육에 접목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최첨단기술을 교육과 접목해 공교육에 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강화한다. 또 안전설비 정비와 같이 실습이 어려운 교육 분야에 가상현실 기반 실습 시스템 '클래스'(Xlass)를 제공, 메타버스 시대에 맞춰 가상실습, 체험 서비스 콘텐츠를 연구·개발한다.

학교별 구매자율권 등 에듀테크 산업 육성 필요해

코로나19가 그동안 더디게만 흘러왔던 에듀테크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지만, 빠른 성장을 견인하려면 지난해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에듀테크로 학습 공백의 위기를 넘긴 것처럼 실효성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정부가 학교별 구매자율권 등 에듀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나서주길 바란다.

고마운 그 이를, 선생님

테크빌교육이 20주년을 맞아 다양한 변화의 기로에 섰다. 하지만 그 변화의 중심은 단연코 '선생님'이다. 선생님이 있었기에 지나온 20년이 가능했고, 앞으로의 20년을 꿈꿀 수 있었다. 고마운 얼굴을 떠올리며 이 지면에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 본 매거진에는 언제봐도 반갑고 존경하는 선생님들의 20주년 축하 인사도 담겼다. 함께 읽어 보며, 소소하게나마 축하의 마음을 나눠주면 고맙겠다.

테크빌교육의 20주년은 소소했다. 창립기념일 당일도 '세이프 더 칠드런'에서 진행하는 신생아 모자 뜨기를 마무리하며 기념 촬영한 것이 전부다. 이런 날일수록 주변을 돌아보는 따뜻한 마음을 실천하는 것이 더욱 값지다고 생각해서다. 앞으로도 테크빌교육은 선생님을 최선의 가치로 생각하며 공교육 기반의 에듀테크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것이다. ⑦

※ 본 글은 2월 3일 전자신문(김명희 기자)에 실린 인터뷰 기사입니다.



인공지능 시대, AI 보조교사 활용하는 아이언맨 교사가 되자

글. 정제영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학장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학교는 예전의 모습으로 온전히 돌아갈 수 있을까? 교사와 학생이 눈 마주치며 교실에서 수업하는 풍경은 다시 시작되겠지만 그렇다고 예전과 똑같은 순 없다. 이미 교육의 변화는 시작됐고,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성 질병이 언제 발생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원격수업은 상시체제로 운영돼야 할 것이고, 그동안 고착된 교육환경으로 인해 더디게만 흘러갔던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 학습은 가속도를 붙일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인공지능(AI)과 교사가 있다. 교사는 인공지능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걸까? 이에 대해 AI융합 교육연구지원센터장이자 이화여대 호크마교육대학 학장인 정제영 교수님에게 의견을 구해보았다.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

인공지능은 이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사회 모든 영역에서 파괴적 혁신을 이끌고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음성을 인식하고, 사진을 찍을 때 자동으로 초점을 맞추고, 동영상도 편집해준다. AI 스피커는 좋아하는 음악을 선곡하고, 날씨 정보도 척척 가르쳐 준다. 빅데이터를 활용해 내가 좋아하는 상품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는 거의 모든 쇼핑몰에서 제공하고 있다. 바둑을 가르치는 것도 이제 인공지능에 맡겨놓고 있어 AI가 바둑의 사범님이 됐다. 이제 삶의 많은 순간이 인공지능과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약력 정제영

-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학장
- 이화여대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 AI융합교육연구지원센터장
- 前 교육과학기술부 서기관
- 저서 『AI교육혁명』,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정책론』, 『교육학개론』, 『교육정치학』 외

학교에 있는 아이들의 모습

학교 교육은 그동안 일부 학생에게는 행복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다. 이 학생들은 학교에서 성공을 경험하는 아이들일 것이다. 하지만 많은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기억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학교는 개개인의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지 못한다.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효율적으로 교육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돼 있으므로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기에는 자원이 부족하다. 교육과정에 따라 정해진 진도를 나가고, 교육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맞춤형 교육의 이상과 교육개혁의 실패

블룸(Bloom)은 학생의 적성과 수업이해력, 수업의 질을 높여 학습에 필요한 시간을 줄이고, 학습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개인별로 학습에 사용된 시간을 늘려주면 완전학습(mastery learning)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평균적 수업에서 벗어나 개별화된 학습을 지원해 줌으로써 대부분 학생에게 학습의 성공이라는 기쁨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는 아이디어이다. 20세기에 많은 교육정책 담당자들은 완전학습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교육 시스템에서 맞춤형 학습을 구현한 교육개혁의 성공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학교의 제한된 교원, 교육과정, 교육평가, 시설, 재정 등은 맞춤형 학습의 걸림돌로 작용해왔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대규모로 진행됐던 학급당 학생 수의 감축(class size reduction) 실험도 긍정적 성과를 거두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학급당 학생 수 이외의 다른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됐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 분야에서
혁신의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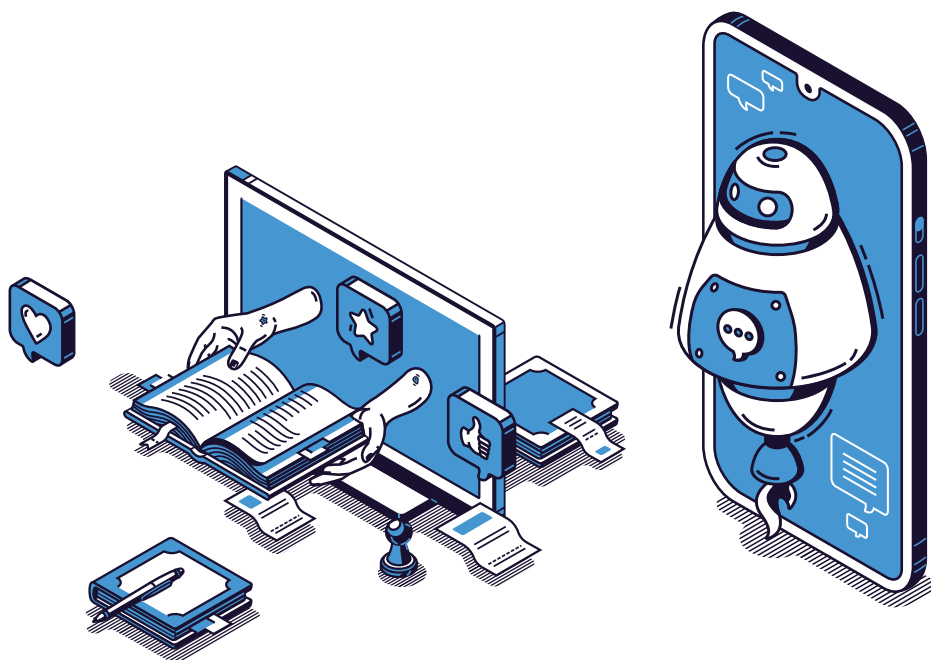


인공지능 기술의 교육적 적용

인공지능 기술은 교육 분야에서 혁신의 새로운 희망을 던져주고 있다. 전국의 모든 교실에서 학생들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은 교사가 진행하는 수업이 나의 학습 수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내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학습, 즉 맞춤형 개별화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학교 시스템의 한계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몰입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에듀테크 산업 분야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학생의 수준에 맞춰 성공할 때까지 학습을 지원한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생성된 알고리즘은 학생이 학습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경로로 안내를 한다. 학습의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피드백과 학습 개선을 이끌어줄 수 있다.

인공지능 보조교사 활용하는 아이언맨 교사

인기 영화인 <아이언맨> 시리즈에서 주인공은 다른 사람과는 다른 슈퍼 파워를 발휘해 악당을 무찌른다. 아이언맨이 일반인을 뛰어넘는 역량을 발휘하는 비밀은 바로 아이언맨 슈트와 함께 인지적 역량을 강화해주는 인공지능 비서인 ‘자비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인공지능을 충분히 활용하게 되면 이를 ‘증강지능(augmented intelligence)’이라고 부른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의 교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움을 받아 맞춤형 교육을 자유롭게 시행하는 아이언맨과 같은 증강지능 교사이다.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류하고 평가하고 기록하는 일은 인공지능 보조 교사에게 맡기고 인간 교사는 학생들의 진



로 목표를 함께 설정하고, 동기 수준을 높여주고, 피드백해주는 맞춤형 코치로
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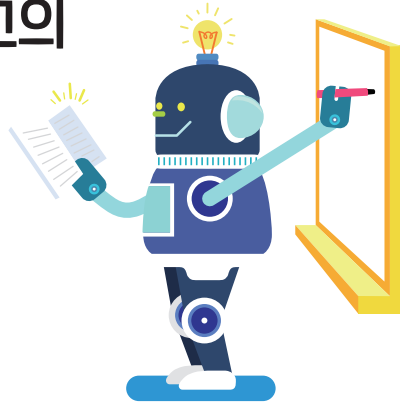
우리가 바라는 인공지능 교육혁명

2020년에 전 세계를 어려움에 빠뜨린 코로나19는 우리나라 교육에 큰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모든 학교에서 온라인 비대면 교
육을 시행했다. 하지만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실험은 미래교육을 위한 의미 있
는 경험이었다. 온라인 비대면 교육 실험은 긍정적인 측면 이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 온라인 수업으로 학습격차가 발생하게 되어 학교와 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생각해볼 계기가 됐다. 그리고 온라인 교육은
비인간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성, 협업 능력 등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온라인 교육에 따른 학습격차는 기술이 압도하는 교육 혁신이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험적 증거이다. 교사가 인공지능 보조교사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주도해야 한다. 이를 교사가 주도하는 하이터치(high touch)와
인공지능 보조교사의 지원을 의미하는 하이테크(high tech)의 결합이라고 일컬
을 수 있다. 하이테크를 활용해 기초 지식을 학습하고, 이를 기반으로 교사와 함
께 더 높은 수준의 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학
생이 행복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엄청난 설렘이 다가온다.
이제는 교육계의 참여를 통해 행복한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볼 때이다. **T**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학교의 오늘과 내일

글. 노정서 신남중학교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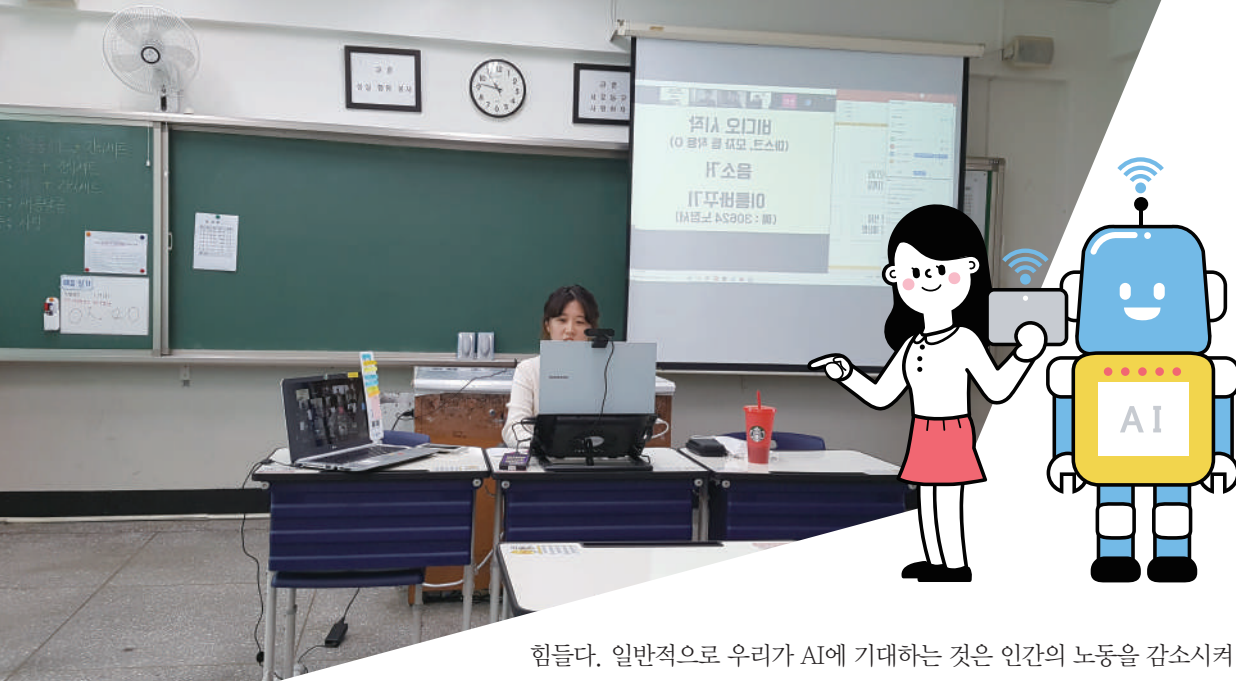


학교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교육부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과 AI 전문교사의 양성계획을 발표했다. 아직은 실체가 보이지 않는다고도 하지만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교육 혁신을 시도하는 것에 토를 다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며 학교와 교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노정서 선생님은 그 해답이 수업에 있다고 전했다.

인간 with 인공지능(AI)

MBC 간판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는 매회 참신한 프로젝트와 MC 유재석의 수많은 부캐(부캐릭터)들로 큰 화제를 몰고 있다. 유산술은 트로트 열풍을, 유두래곤은 여름 노래의 추억을 불러일으켰고, 지미유가 만든 특별한 댄스 그룹에 대중은 열광했다. 이 부캐들 뒤편 수십 명의 조력자가 있다. 바로 수많은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여러 PD와 작가들 그리고 제작진들이다. 이들은 어떤 일이든 척척 해내는 전지전능한 마법사가 아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면서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창의적이고, 복잡하고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동료들과 머리를 맞댄다. 그리고 대중의 마음을 움직여 공감과 감동을 낳았다.

그렇다면 이런 프로그램을 인공지능이 제작할 수 있을까? AI 진행자 또는 AI가 등장하는 프로그램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 이미 현실이 되고 있다. 2018년 중국 신화통신에선 세계 최초로 AI 아나운서를 선보였고, 국내 일부 방송사에서도 AI 앵커의 데뷔를 준비 중이다. 또 올해 초 SBS 예능 프로그램 <세기의 대결 AI vs 인간>은 AI에 대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이 사례들 속 AI는 인간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존재한다.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부푼 기대는 딥러닝과 같은 AI 기술의 발전이 자양분이 되어 더욱 증가하는 반면, AI가 인간의 모든 것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엔 긍정적으로 대답하긴



힘들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AI에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노동을 감소시켜 삶의 편리함을 찾는 수단에 가깝지 감정적 교류와 소통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놀면 뭐하니?>와 같은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은 다 음과 같다. “오직 그것만으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을 것이다.”

인간과 AI는 다르다. 공존의 세상을 만들어야

“인간에게 쉬운 것은 컴퓨터에 어렵고, 컴퓨터에 쉬운 것은 인간에게 어렵다” 라는 모라벡의 역설처럼 인간과 인공지능의 능력도 분명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점을 극대화하면 인간과 인공지능은 서로의 능력을 내세우는 갈등 관계가 되 어 우리 사회에 혼란을 낳을 것이다. 그러나 차이점을 간파해 최적의 장소에 활 용한다면 인간과 인공지능이 협업하는 공존의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인간은 서 로 관계를 형성하고 감정을 담아 소통하며 추상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을 갖추 고 있다. 인간 고유의 능력을 빛내고 발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AI 기술이 개 발돼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 시대의 모습과 문제의식을 먼저 경험 하는 통로 역할을 학교 교육이 맡아야 한다. 학교는 친구와 소통·협업하며 인 간과 사회를 배우는 가장 첫 단계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학교

지금 학교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2020년 11월, 교육부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중 하나로 ‘사람 중심의 창의성 역량 교육을 통한 감 성적 창조 인재 육성’을 제시했다.¹⁾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에 적용할 때 인간 고 유의 가치, 인간다움을 존중하며 포용적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어 2021년 2월 서울시교육청은 인공지능 기반 융합 교육의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다. 인공지능 기반 융합 교육이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수리과학·정보·



약력 노정서

• 서울 신남중학교 교사

1) 교육부(2020. 11. 20.),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https://www.moe.go.kr/boardCnts/vi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opType=N&boardSeq=82674>

인문사회·체육 예술 등 모든 교과 및 메이커, 진로진학, 생태전환, AI 윤리교육 등을 융합해 학생의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을 뜻한다.²⁾ 즉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만날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의 개념과 원리를 담은 과학이나 정보 교과의 내용 지식뿐만 아니라 교과 간 인공지능 기반 주제 중심의 교과 융합 지식을 모두 포함한다. 그리고 나아가 교육과정-수업-평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토대로 개별 학생 맞춤형 교육의 실현을 위한 뛰어난 도구로도 활용될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를 위해 교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그 해답은 교사가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수업’에 있다. 인공지능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을 각 교과에 도구로 활용하는 수업 또는 인공지능 윤리·사회적 영향과 같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교과 융합 프로젝트 수업을 디자인할 수 있다. 이는 학교급, 교과에 상관없이 모든 교사가 할 수 있고, 모두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 교사들의 공감과 협업은 자연스레 뒤따라 온다. 이러한 수업은 학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하고 협업의 가치를 배우며 미래 핵심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 창의성·소통·협업·배려와 같은 인간다움을 지닌 미래의 학생들은 <놀면 뭐하니?>란 프로그램처럼 인간다움을 타인과 함께 실천하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따뜻한 변화를 이끌어갈 것이다.

미래교육에 대한 기대감으로 함께 나아갔으면

끝으로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인공지능 시대의 미래교육을 한 단어로 정의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는 미래가 불확실하고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미래교육은 이 글을 쓰는 글쓴이와 이 글을 읽는 독자처럼 변화를 인지하며 지속해서 교육적 고민을 하는 것이라 말하고 싶다. 미래교육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다. 지난해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한 교육 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이미 미래교육의 과정을 겪고 있다. 혹자는 코로나19가 오히려 우리 교육을 미래로 한 발짝 앞당겼다고 평가한다. 이처럼 미래교육은 생각하지 못했던 불확실한 상황에서 변화를 받아들이며 혁신을 추구한 노력이 모여 조금씩 만들어진다. 우리는 이미 인공지능 시대를 예상하며 교육현장에서 만날 인공지능 교육을 준비하고 있으니 확신할 수 없는 두려움보다는 미래교육을 맞이할 기대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길 소망한다. ㉠

2) 서울시교육청(2021.02.09.), 「인공지능(AI)기반 융합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 계획」, <https://enews.sen.go.kr/news/view.do?bbsSn=170640&step1=3&step2=1>.

티처빌매거진

동네방네 소문내요 SNS이벤트



EVENT 참여방법

- STEP ①** 티처빌매거진 봄호의 표지나 가장 좋았던 기사 사진 촬영
- STEP ②** 본인의 SNS에 사진과 함께 간단한 구독평 1~2줄 작성
- STEP ③** 아래 해시태크(#)와 함께 게시

#최신교육정보

#교사수업노하우

#티처빌매거진

#친환경용지사용

참여대상

매거진
구독자 누구나

이벤트 기간

2021년 4월
한달 간

당첨 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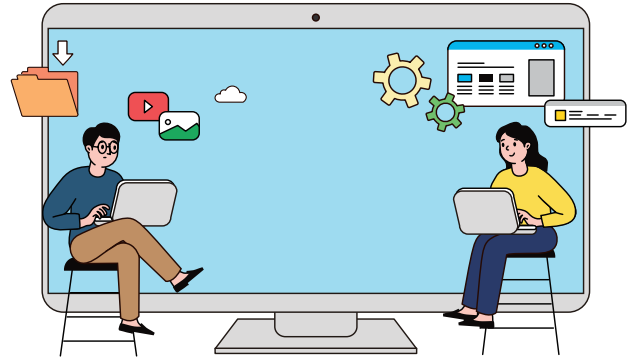
스타벅스 커피
기프티콘

(20명)

※ 5월 7일 당첨자에게는 별도 연락

온라인 수업, '혼자' 하지 말고 '함께'하자

글. 김진영 인천대정초등학교 선생님



오프라인 수업이 익숙한 선생님들에게 온라인 수업은 큰 변화이자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에 많은 선생님이 익숙해졌고, 이제는 효과적인 수업을 위해 교사가 직접 수업 콘텐츠까지 기획·생산하고 있다. 선생님들의 이런 변화의 저력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배움'이다. 그것도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배움. 에듀콜라 운영진이자 인천대정초등학교 김진영 선생님도 같은 학년 선생님들과의 공동학습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됐다고 말한다. 함께하는 학습이란 어떤 모습일까.

교사에게 너무 낯설었던 온라인 수업

2020년 3월 2일 전국의 학교가 개학을 연기했다. 2주씩 반복되던 개학 연기는 4월 중순에서야 온라인 개학으로 마무리가 됐다. 심지어 개학 연기는 6·25전쟁 때도 없었던 일이다. 조금 있으면 진정되겠지 싶어 오프라인 수업에 최선을 다해 준비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니 다들 쉽지 않았을 것이다. 온라인 수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교사에게 너무나도 낯선 일이었으니 말이다.

온라인 수업, 직접 만들기로 하다

우리 학년도 마찬가지였다. 개학이 연기되고 협의실에 모여 같이 고민했다. 언제까지 지속해야 할지 모르는 온라인 학습을 어떻게 할지 의논을 시작했다. 같은 학년 선생님들이 상당히 적극적이었고, 쌍방향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을 만드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다. 당시 업로드되어 있던 온라인 수업을 확인해 보았는데, 선생님들의 성에 차지 않아 우리는 직접 제작하기로 했다.

선생님들과 함께 공부를 시작, 수업 노하우 쌓어

같은 학년 협의를 매주 월요일에 하기로 하고 주간학습을 두고 같이 의논을 시작했다. 월요일 1교시부터 금요일 6교시까지 다 같이 공부했다. 처음 같이 공부할 때는 협의가 끝나고 나니 2시간이 넘게 지났다. 그렇게 다 같이 공부를 하니 그 어느 때보다 교재연구가 잘되는 장점이 있었다. 또한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수업에 대한 노하우도 함께 알 수 있었다. 매주 첫날을 2시간 가까이 서로 협의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돼 학년 운영이 더욱 쉬웠다. 교재연구를 같이한 이유는 학생들은 수업 중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으면 담임에게 질문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

래서 모든 과목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될지 알 필요가 있었다.

주당 수업을 기준으로 수업도 나뉘

협의를 끝내고 나면 수업을 나누는데 그 기준은 과목이 아니라 주당 시간이었다. 주당 수업을 만드는 시간을 같게 만드는 데 노력했다. 이유는 이렇다. 과목으로 나눈다면 일주일에 수업을 많이 하는 사람과 적게 하는 사람이 생길 것이고, 이 경우 1년 동안 유지된다면 서로 불만이 쌓일 것으로 생각했다. 사실 1학기를 이렇게 하니 각자 주로 하는 과목이 생기긴 했다. 하지만 차시 변경 등이 생길 때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고, 서로 수업에 대한 협의가 손쉬웠다.

쌍방향 수업의 시작, 과제도 꼭 제시

쌍방향 수업을 해보기로 한 후부터는 주간학습을 보며 무엇이 쌍방향 수업에 좋은지도 고민을 했다. 같이 의논을 해 쌍방향 수업을 할 과목과 단원을 정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가 가능한 것들은 한 학년 선생님들과 같이 시간을 기준으로 나뉘 수업을 만들었다. 더불어 하루에 과제가 2개 정도 되도록 수업내용을 만들었다. 과제가 3개가 되는 순간부터 학생들이 과제를 내는 속도가 느려지거나 질이 낮아지는 것들이 보였다.(그래도 가끔은 하루에 3, 4개 정도의 과제가 나간다)

태블릿 등을 활용해 교과서 PDF에 필기하도록 해

이렇게 1년을 하니 현재 초등학교 구조에서 같은 학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꼈다. 같은 학년과 쌍방향 수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논도 많이 했다. 우리 학교의 많은 학생이 휴대전화로 수업에 참여했다. 휴대전화로 수업을 들으면 화면의 크기가 꽤 작다. 또한 줌을 비롯한 많은 화상 수업 도구들을 살펴보니 채팅창을 보면 교사의 화면을 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었다.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 도구는 교사의 화면을 보며 학생의 화면을 사용해야 하는데 두 개를 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같은 학년 선생님들과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 의논했다. 결론은 교과서 PDF를 이용하는 것이었다. 태블릿과 아이캔노트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 교과서 PDF에 필기하는 수업을 했다. 그 결과 초반에 가만히 있던 아이들이 점점 필기하면서 수업을 듣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떨어지던 학업을 어느 정도는 메워줄 수 있었다. 온라인 수업, 처음 해보니 모든 것이 시행착오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은 학년과 함께해서 시행착오의 기간을 줄일 수 있었고, 나름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물론 이 답이 2021년에도 유효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같은 학년과 함께 수업을 준비하는 것의 효과는 잘 알겠다. 코로나19 시대를 극복하는 비법, 바로 같은 학년에 있다. ㉠



약력 김진영

- 인천대정초등학교 교사
- 에듀콜라 운영진, 놀이위키 운영진
- 실천교육교사모임 인천부회장
- 前 인천부개, 마장, 금마초등학교 교사
- 2020 인천온라인수업지원단
- 2021 인천에듀테크지원단

미디어 사회의 주체의식 심어주는 쌤 크리에이터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제작보다 과정이 중요

글. 이상권 인천발산초등학교 선생님

2020년은 영상으로 수업하는 쌤 크리에이터들이 비주류에서 주류로 떠오른 시기다. 앞으로도 쌤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은 커질 것이라 기대된다. 그렇다면 앞으로 영상을 전문으로 하는 쌤 크리에이터들이 고려해야 할 요소는 과연 무엇일까. 이 분야에서 먼저 앞서나간 쌤 크리에이터이자 몽당분필 2대 대표인 이상권 선생님은 '미디어 리터러시의 이해', '빛과 소리 그리고 편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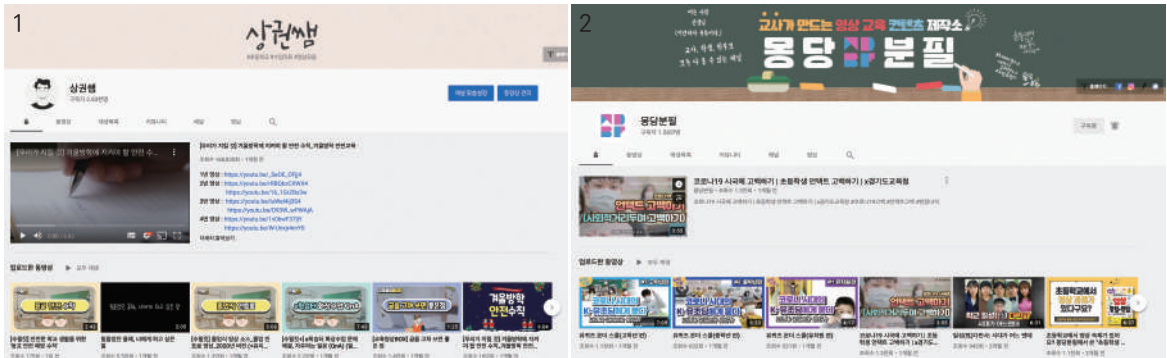
비주류에서 주류로, 쌤 크리에이터

몇 년 전만 해도 교사가 유튜브를 하면 좋게 보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대부분 사람은 '학생들의 얼굴을 미디어에 노출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걱정과 '유튜브 영상을 만드는 시간 때문에 수업 준비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은 그런 시선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수업 영상을 준비해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선생님, 이른바 '쌤 크리에이터'들이 많이 늘어났다. 학생들에게 익숙한 유튜브를 통해 비대면 수업에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직접 선생님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해서 미디어에 교육적 가치를 두고 '쌤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분들에



약력 이상권

- 인천발산초등학교 교사
- 영상콘텐츠제작모임 몽당분필 2대 대표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플랫폼 화상수업지원단
- 티치발원격교육연구원 직무연수 강사
- 前 중앙교육연수원 직무연수 강사
- 前 경기도평생학습교육관 영상콘텐츠 제작지원단
- 前 YOUTUBE KOREA 유선생 아카데미 영상콘텐츠 팀원
- 저서 『영상 촬영+편집 무작정 따라하기』, 『독서록 나와라 똑딱』



게 도움을 드리고자 ‘몽당분필’, ‘상권쌤’ 채널을 운영하며 겪었던 노하우나 시행착오 그리고 여러 팁을 알려 드리고자 이 글을 쓴다.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한 이해가 전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문자 언어를 읽고 쓰는 능력을 정의하는 ‘리터러시’가 미디어라는 용어와 합성해 생겨난 개념이다. 미디어를 수용 및 해석하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 정의해 더욱 적극적으로 미디어에 참여하고 활용하는 개념으로 바뀐 것이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를 제작하는 것보다 만드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배움이 중요하다. ‘쌤 크리에이터’가 만드는 콘텐츠를 무작정 교과 내용과 연계해 제작하는 것이 아닌 핵심역량을 근거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를 기초로 해 영상을 만들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어과에 제시된 ‘뉴스 제작하기’ 차시의 학습 영상을 만들거자 할 때, 아이들이 교사가 만든 영상을 통해 배워야 하는 내용의 목



1. 상권쌤 채널.
2. 몽당분필 채널.
3. 6학년 국어 뉴스 제작하기.

적은 뉴스 영상을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뉴스를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며 언어적 표현 능력과 매체를 활용하고 읽고 쓸 수 있는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인 ‘의사소통 역량’을 배우고 습득하는 것이다.

빛의 중요성

영상을 촬영할 때 조명을 사용해 충분한 밝기의 환경일 경우 스마트폰 카메라를 사용해도 좋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그런데 조명기기를 살 여력이 부족하거나 갑자기 영상을 촬영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태양의 빛을 활용한다. 우리가 인공적인 조명을 사용하는 경우는 실내에서 촬영하거나 태양이 비치지 않는 흐린 날에 촬영하는 경우이다. 태양만큼 돈이 들지 않고 영구적이며, 밝은 조명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태양빛이 내리쬐는 각도와 일조량 등을 잘 고려해 영상을 촬영하면 매력적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그럼 실내에서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 이때 사용하는 것이 조명기기와 반사판이다. 먼저 주변에 흔히 쓰는 스탠드 조명이 있다면 그것으로 등장인물을 비추거나, 벽을 반사해 촬영하면 충분한 빛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주변에 흔히 있는 ‘하드보드지’나 ‘은색 돛자리’를 활용해 형광등에서 내려오는 빛을 모아 등장 인물에게 집중시켜 조금 더 밝은 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

소리의 중요성

영상을 촬영한 뒤 재생했을 때 가끔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대부분 촬영기와 등장인물의 거리가 멀거나 촬영 공간이 넓은 곳, 그리고 주변의 소음이 큰 경우 깨끗하게 녹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새로운 녹음기를 사기에는 녹음 기기의 사용법을 익혀야 하고 금액적인 부담도 크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이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녹음 기능을 켜 뒤 등장인물의 주머니 속에 넣거나 촬영하는 기기의 앵글 밖에 두면, 녹음에 대한 고민 없이 고음질의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혹은 촬영 후에 내레이션과 같이 화면을 설명하는 음성이 필요하면, 이때도 스마트폰 녹음 기능으로 따로 녹음하면 깨끗하고 또렷한 목소리를 녹음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미디어를 제작하는 것보다 만드는 과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므로 하나의 미디어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배움이 중요하다.



편집의 중요성

촬영 장비를 통해 촬영이 끝났다면 영상 소스를 편집해 영상을 꾸미는 작업이 필요하다. 영상을 편집하는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가 어렵고 복잡해 영상을 처음 만들고 접하는 사람에게는 편집 프로그램에 접근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스마트폰 영상 편집 앱을 활용한다. 다양한 프리셋과 템플릿을 통한 빠른 편집 기능과 직관적인 편집 인터페이스, 편집 작업 환경을 위한 공간의 제약이 적어 쉽게 편집할 수 있다. 그중에서 ‘키네마스터’는 다른 어플보다 어도비 사의 프리미어와 같은 레이어 개념으로 영상을 편집할 수 있어 높은 퀄리티의 영상을 만들 수 있음에도 사용하기에 쉽고 간단하며 다양한 소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 활용하기에 좋을 것이다.

나도 쌤 크리에이터!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쌤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다양한 팁과 심도 있는 내용은 터치빌연수원의 ‘한 달 만에 쌤 크리에이터 되기’(2학점)의 직무연수를 통해 배울 수 있다. 장비에 대한 설명부터 영상 기획, 촬영, 편집까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으로 구성했다. 이 연수를 통해 전문 영상 제작 과정에 대해 배우고 학생들에게 알찬 수업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학생들에게 미디어 사회의 시민의식과 주체의식을 심어주는 수업 영상을 만드는 ‘쌤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해 지금도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①

한 달만에 쌤
크리에이터 되기 PRO



4 5



학생이 꿈을 찾고 이루도록 지원하는 고교학점제

교사는 질문하고 방법 제시, 학생은 자기 주도적으로 답변

글. 정미라 병점고등학교 선생님



지방대는 정원 미달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겪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유·초·중·고는 물론 대학까지 폐교하는 사례가 생겨나고 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교육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입시의 굴레에 빠져 있던 고등학교는 대학진학이라는 진로 외에 다양한 방향으로 학생들의 역량과 인성을 키워주는 공간으로 변신하고 있다. 그 첫 단추가 고교학점제이다. 이는 다 과목 지도로 교사의 부담을 가중하는 제도가 아니라 학생들이 꿈을 찾고 이루기 위해 학업을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될 것이다.

고등학교, 학생의 꿈을 키우고 실현하는 학습의 공간

학생들은 배우기 위해 학교에 다닌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배운다. 학생들의 꿈은 다양하다. 의사·변호사·로봇 공학자·축구선수·요리사·미용사·피부관리사 등 모두 열거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듯 학생들은 학교에서

꿈을 꾸고 자신이 결정한 꿈을 이루기 위해 공부한다. 학교는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공간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오늘도 학교에 다니고 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이것이 진실이다. 그러나 항상 궁극하다.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해 시민으로 사는 삶을 살아가기 직전 과정인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꿈을 키우고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학습을 수행하고 있는지 말이다.

현실 속 고등학교는 입시의 굴레에 빠져 있어

고등학교가 대학진학의 통로로만 인식된 것은 오래됐다. 고등학교는 S대를 보낸 학생 수에 따라 서열화되고 이것이 입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학교 홍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심지어 S대를 한 명도 보내지 못하는 학교도 S대를 보내기 위한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S대 합격생이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학생보다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 지치고 좌절해도 끊임없이 이 반복되는 굴레에서 맴돌고 있다. 이 굴레에서 벗어나 보고자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 중심 교육정책이 시행되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이 개정돼 적용돼도 이 굴레는 더 심화하고 견고해졌다.

학령인구의 감소, 많은 대학이 사라지게 될 것

학생 수가 줄고 있다. 그것도 매우 심각하게 줄고 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2017년 846만 명에서 향후 10년간 190만 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유·초·중·고 도미노 폐교 위기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폐교와 함께 지역이 소멸하고 있다. 지금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곧 수도권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많은 고등학생이 희망하는 진로 과정인 대학은 어떻게? 역시 대학 또한 지방을 시작으로 빠르게 폐교가 진행되고 있다. 2030년이 되면 절반 이상의 대학이 사라질 것이라고 한다. 이는 향후 10년 후의 변화이고, 곧 다가올 미래이기도 하다.



약력 정미라

- 병점고등학교 영어교사
-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부소장
- 前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 前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겸임교수
- 저서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공저), 『고교학점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공저)

학교,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해

이제 고등학교 교육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때가 됐다. 학생은 줄고, 대학은 폐교되고,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로 배우의 방식은 바뀌고 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 수도 졸업자 중 30%까지 증가했다. 고등학교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



것인가? 대학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진학을 준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취업을 꿈꾸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직업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졸업 후 다른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는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공간이 돼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학생이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과 인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바로 학교가 돼야 한다.

획일적·강제적 교육에서 탈피, 소외 없는 교육 필요

학교가 모든 학생의 배움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공간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떤 진로를 희망하더라도 EBS 문제집을 모든 학생에게 지도하는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교육이 아니라 시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역량과 인성을 함양하고 자신의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교육이 시작돼야 한다. 이것이 고등학교 교육의 본질이고 목적이다. 그동안 우리 교육은 그 본질에서 한참 동떨어져 있었다.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그 본질로 돌아가야 할 시점이다.

교사에게 모든 학생은 소중한 존재이다. 어느 학생 한 명도 교육에서 소외시키고 싶지 않다. 좌절하는 학생을 보면 안타깝고, 방황하는 학생을 보면 길을 찾아주고 싶고, 분노를 표출하는 학생을 보면 안정시켜 주고 싶다. 자신이 지도하는 모든 학생이 자아를 실현하고 사회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것은 자녀가 있는 교사들이라면 자신의 자녀에게도 바라는 바일 것이다.

꿈을 찾고 키우는 학교로 가는 길, 고교학점제

고교학점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자. 국립대학조차 입학정원이 미달하고 있는 현재에도 대학입시로 고등학교 교육이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할 수



교사는 학생이
무엇을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학습을 제공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로 학업
설계과정이고
고교학점제의
시작이다.



있을까? 지금이 바로 고등학교 본래 목적으로 회귀할 기회이다. 고교학점제는 모든 학생이 학교교육을 통해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학업을 계획하고 책임감 있게 실천하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 단순히 다 과목지도와 책임교육 지원으로 교사의 부담을 가중하고 학생에게 졸업의 기회를 제한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미 교육현장에는 국어·수학·영어 이외에 교과에서 3~4개 과목을 지도하는 교사들이 존재했고, 이와 함께 학교 교육공동체가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는 학교자치 체제와 교육부의 지원 방안으로 다 과목지도와 책임교육에 대한 교사의 부담을 현실적으로 해소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업시간에 수업에서 소외돼 잠을 자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졸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이 시작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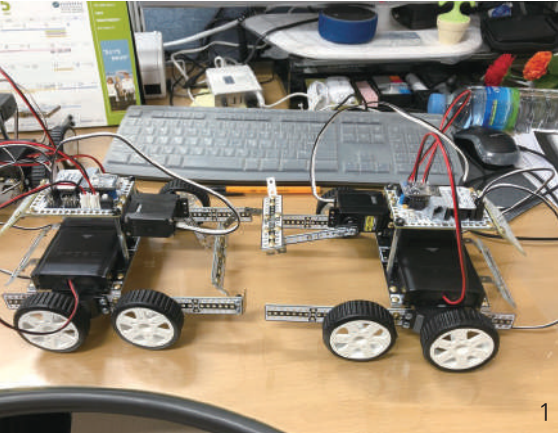
고교학점제의 시작은 진로 학업 설계과정

학교는 학생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한다. 학생의 진로가 무엇인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떠한 순서와 방법으로 학습하고 싶은지? 학습하는 데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학생에게 질문하고 방법을 제시해 학생들은 자기 주도적으로 답변을 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무엇을 꿈꾸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어떤 학습을 제공하고 지원해야 하는지, 무엇을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진로 학업 설계과정이고 고교학점제의 시작이다.

진로 학업 설계 지도란 학생이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진로를 결정하고, 자신의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배움의 단계에 따라 적절히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해 졸업할 수 있도록 학업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과정을 지원하는 교육이다.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면 먼저 진로 학업 설계 지도를 시작해보자. 이 과정에서 교사들은 고등학교 교육의 정체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고, 고교학점제의 실행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교사들이 희망하는 모든 학생을 존중하고 학생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공교육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인식하게 될 것이다.

체계적이고 실제적인 진로 학업 설계 지도에 대한 정보와 연수가 필요하다면 티처빌 원격연수 프로그램을 검색해보길 추천한다. ①



1



2

일상에서 수업으로 들어오는 인공지능 교육

바뀐 세상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글. 김상훈 목포중앙고등학교 선생님

코로나19 상황으로 앞당겨진 인공지능의 시대. 세상이 바뀌면 바뀐 세상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2025년부터 인공지능 교육이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됐다. 새로운 교육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걱정도 될 것이다. 이에 티처빌이 오래 전부터 인공지능 교육에 주목하고 학생들과 함께 다양한 인공지능 교육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김상훈 선생님께서 리얼 인공지능 교육 사례를 물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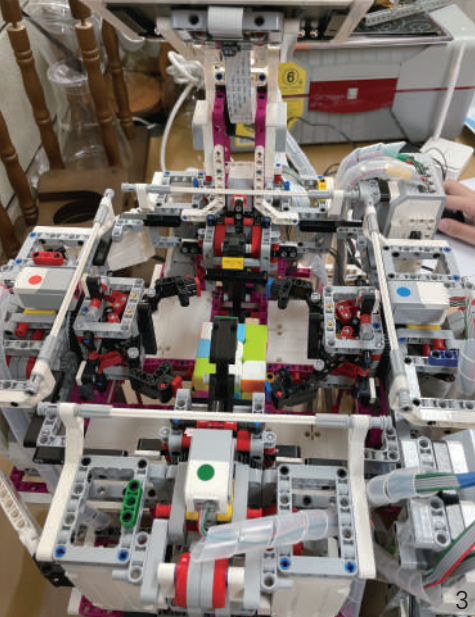
오래전부터 시작된 인공지능에 관한 관심

처음 인공지능 언어에 관심을 두게 된 계기는 컴퓨터교육학과 3학년에 재학하던 시절,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오신 지도교수님의 인공지능 수업 덕분이다. 그 당시 국내에는 인공지능 언어와 기술이 선보이기 전이었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이미 이 분야에 많은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됐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란 기술이 앞으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바꾸게 될지는 상상하기 힘들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완성



약력 김상훈

- 목포중앙고등학교 교사(진학취업부장)
- 한국청소년동아리연맹 전남지부 회장
- 조세현희망프레임 정회원
- 前 전라남도교육청 SW컨설턴트
- 논문 『목포지역 고교평준화 정책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인식변화』(고려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논문), 『광주전라지역의 고등학교 특수학급 전환교육 협력활동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세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체는 2012년 구글의 딥러닝을 시작으로 2016년이나 돼서야 사람과 인공지능 알파고의 바둑대결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생소했던 인공지능 이제는 일상 속으로

처음 인공지능 언어를 접하고 공부할 때는 인공지능의 초창기 시절이라 인공지능을 소프트웨어인 LISP나 PROLOG를 통해 인공지능 언어를 실행하고 결괏값을 처리하는 정도로 이해했다. 하지만 인공지능 교육은 2021년 2학기부터 고교 진로 선택과목으로, 2025년부터는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포함됐을 정도로 이제는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동료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은 인공지능 이야기가 있어 본 지면에 몇 자 적어보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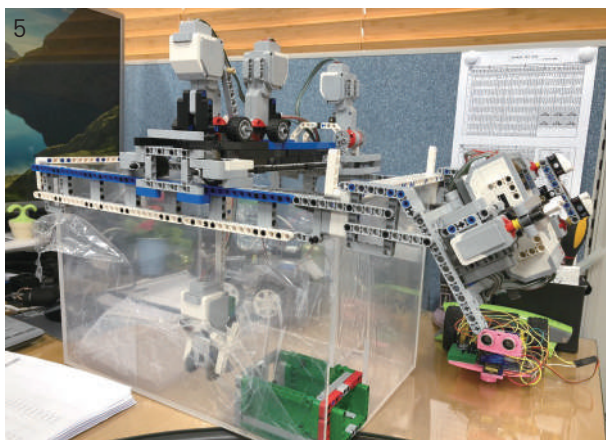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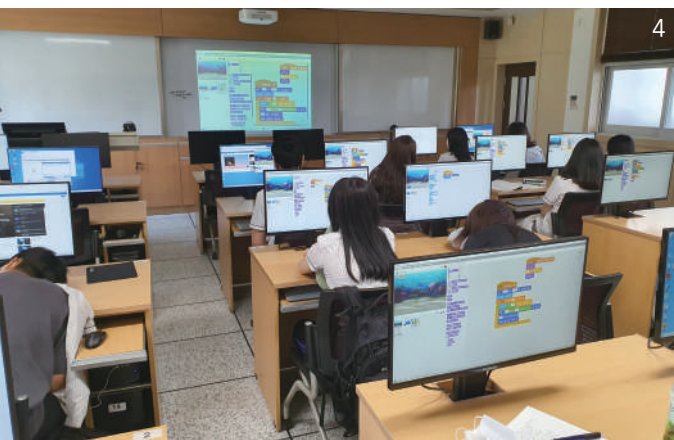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

인공지능을 줄여서 AI라고 부르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컴퓨터가 인공적으로 구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인간이 할 수 있는 사고·학습·자기계발 등을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고,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서 다량의 데이터나 복잡한 자료들 속에서 핵심적인 내용 또는 기능을 요약하는 작업을 시도하는 기계학습을 딥러닝이라고 부른다.

인공지능이 교육에 필요한 이유

과거에 비교해 인공지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사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고 있다. 방 송사에서도 주식·보컬트레이닝·골프·프로파일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AI와 사람과의 대결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또 교육현장에서도 AR·VR·IOT 등을 이용한 교육활동을 통해 교육의 장벽을 허물고 있으며, 스마트교실 및 AI 교육환경을 구축 중이다. 세상이 바뀌면 바

1. 블럭코딩인 스크래치3.0을 활용한 축구로봇.
2. SW동아리 학생들과 방과 후 수업으로 인공지능 로봇 제작.
3. 라즈베리파이와 레고EV3, 파이썬을 이용한 인공지능 퍼즐 로봇.
4. 창체시간을 활용한 SW동아리 '셈틀지기' 학생들 블럭코딩 체험 중.
5. 레고 EV3마인드스톰을 활용한 인형뽑기 로봇 만들기.



핀 세상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을 배워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인공지능 학습사례, 큐브 로봇과 자율주행 드론

유튜브에서 인공지능에 관련된 영상을 보던 중 Rucik's Cube World Record 관련 영상을 보게 됐다. 이 영상을 통해 큐브 관련 로봇으로 학생들이 인공지능교육을 경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 먼저 (주)퓨너스의 대표님과 연구원들의 도움으로 레고를 이용한 인공지능 퍼즐 로봇을 제작 의뢰했고, 레고 EV3 코어셋 3개와 1개의 라즈베리파이4¹⁾ 보드, 4인치 모니터, 그리고 구동되는 SW는 파이썬을 이용해 제작이 진행됐다. 개발 기간은 6개월, 제작 기간은 1개월 이상이 걸렸다.

현재 3×3 퍼즐 기준 30초에서 최대 2분 이내에 퍼즐이 완성되며, 학생들과 인공지능 퍼즐큐브 로봇과 대결도 가능하다. 1분 내로 퍼즐을 빠르게 맞추는 학생은 인공지능 큐브 로봇과 재미난 배틀도 할 수 있게 됐다. 그 밖에도 요즘 자율주행 자동차가 레벨 2,5단계에서 곧 3단계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듯이, 드론에도 인공지능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인공지능 동아리 '썸틀지기' 학생들과 함께 드론을 이용한 인공지능 자율주행에 도전하고 있다. 패럿사의 '맘보'라는 교육용 코딩 드론을 이용해 초음파센서와 파이썬 언어를 이용한 재미난 교육 활동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 계획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 타 교과와 융합 교육을 연구하면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상황을 인공지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한다. 우선 기존에 퍼즐 로봇을 스마트폰 프로세서를 이용한 큐브 로봇으로 바꿔 조립시간을 1/10로 단축하고, 파이썬을 이용한 AI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과 관련된 다양한 수업 연구 사례 등을 만들어 썸돌네를 통해 선생님들과 공유하고자 한다. 또 올해 학생들과 인공지능 교육으로 하고 싶은 2가지 프로젝트가 있다. 첫 번째는 긴급 회피 기능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와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드론을 만드는 것이며, 두 번째는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에게 인공지능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것이다.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도 학생들과 함께 인공지능 교육의 재미를 차근차근 알아가길 진심으로 바란다. ㉮

1) 영국의 라즈베리파이재단이 학교에서 기초 컴퓨터 과학 교육을 증진하기 위해 만든 싱글 보드 컴퓨터로 그래픽 성능이 뛰어난 게 장점이며, 프로그램 개발자와 마니아 사이에서 인기가 더 높은 라즈베리파이는 손바닥만 한 크기로 키보드와 모니터를 연결해 사용할 수 있다. 4G 메모리에 USB 2/3을 지원하는 포트가 각각 2개씩 있다. 그리고 전원은 USB-C 타입과 미니 HDMI 2개를 지원하고 있다.

[유튜브채널 썸돌네 리뷰]

인공지능 영상 및
김상훈 선생님의
교육영상 더보기





한 학기 한 권 읽기

대면/비대면 독서 수업 완벽 대비

독서수업의 현명한 선택!
오직 티처몰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학생용 독후활동지

#1

추천도서 70종 및 교안 소개

- ☑ 추천도서: 어사모 X 사서협회 X 현직 선생님 추천
- ☑ 교안개발: 허니에듀



#2

대면 수업은 인쇄용 독후활동지 활용

도서 구매시 책과 함께 발송됩니다

- ☑ 수업에 바로 사용 가능
- ☑ 학습 꾸러미 배부 추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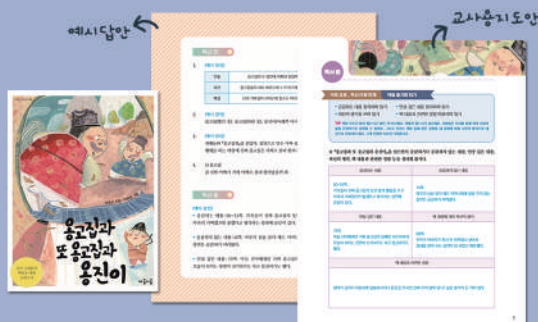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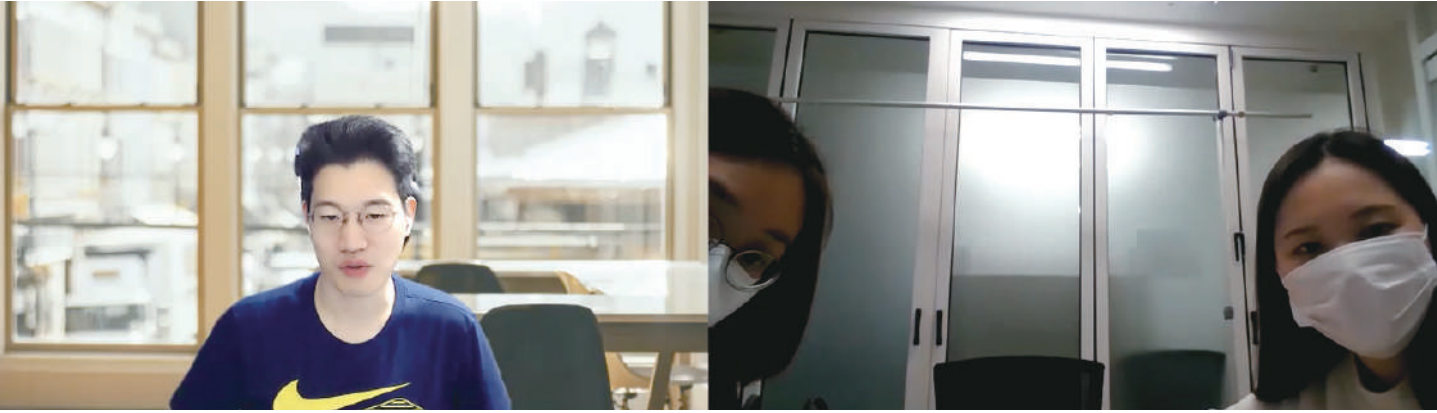
비대면 수업은 활동지 파일로 수업

다운받은 파일은 온라인 클래스, e학습에 업로드 가능

- ☑ 학생용 파일
- ☑ 교사용 지도안
- ☑ 예시 답안

구매 전 다운로드 가능(로그인 필수)





"2021년에도 온라인 수업은 지속할 것"

치열하게 준비하고 설레는 한 해 만들었으면...

글. 테크빌교육 홍보팀

2월 24일, AZ 백신이 긴장감 속 첫 출하 준비를 마치고 모레부터 접종을 시작한다는 기사가 속보로 났다. 그토록 고대하던 일상 회복으로의 첫걸음을 막 떼려는 참이다. 하루빨리 우리 아이들도 매일 아침 학교로 향하는 평범한 일상이 재개되길 바란다. 하지만 그것이 온라인 수업의 종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교육부에서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온라인·등교 수업은 병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그렇다면 올 3, 4월 선생님들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여전히 '온라인 수업'일 것이다. 새 학년 학기 초인 만큼 온라인으로 학생들과 라포를 형성하는 방법, 재미있는 수업 만들기, 참여도 향상 방법과 같은 지난해와는 또 다른 깊이의 고민이라 생각한다. 해서 10년 전부터 온라인 수업을 해온 양서중학교 손지선 선생님에게 학기 초 선생님들의 수업 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온라인 수업 팁을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이번에는 '줌'(Zoom)을 통해 인터뷰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Q. 새 학기도 온라인 수업이겠죠? 학기 초 해보면 좋을 만한 온라인 활동이 있을까요?

아직 교육부에서 정확한 지침이 나온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전원 등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새 학년에도 온라인 수업, 블렌디드러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갑작스레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선생님들도 혼란스러웠고, 학급 아이들끼리 친해질 기회를 만들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올해는 지난해 경험을 토대로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준비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더 편안한 마음으로 수업 첫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며 아이들 얼굴도 보고, 학급 친구들 사이에 라포를 형성할 수 있을 활동이나 기회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초성만 듣고 해당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나 모



르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게 한 후 담임교사가 편지를 취합해 무작위로 섞은 다음 다른 친구에게 보내 내용을 보고 누구인지 생각해보게 하고, 서로 인사해 보는 활동 같은 것들을 해보는 거죠. 온라인상에서도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만 하면 학생들 간 신뢰감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Q. 학생들이 온라인 활동을 아색해하진 않나요? 잘 따라오나요?

그럼요. 처음이라 더 잘 따라와요. 처음에는 아이들도 서로 서먹하고, 학급에 문화라는 것이 형성돼 있지 않아 담임교사가 의지를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학급분위기를 주도할 수 있어요. 반대로 담임도 '과연 이게 될까?' 의문을 가지고 망설이면 학생들도 바로 알아차리고 하지 않아요. 담임교사가 하고자 하는 활동이 우리 학급 문화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하고 진행하면 학생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하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담임교사를 할 때 꼭 '사랑합니다'라는 인사를 하계끔 시켰어요. 중학교 2~3학년생들인데, 다들 얼마나 어색하고 싫었겠어요. 하지만 지속해서 하다 보니 문화가 됐고, 다른 자리에서는 하지 않아도 반에서만끔 다 하더라고요 그때 담임교사의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깨달았죠. 그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교육적으로 잘못된 부분만 아니라면요.

Q. 선생님들이 요즘 많이 하는 온라인 수업 관련 고민은 무엇인가요?

세 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학생들의 참여도를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을까? 둘째는 아이들이 재미있어할 만한 수업은 무엇일까? 셋째는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해야 할까? 예요. 그다음에 교과별 특성으로 좁혀서 '내가 하는 수업을 어떻게 더 재미있게 할까?'를 많이들 고민하세요. 사실 지금 아이들이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 아닌지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재미있게 수업을 할 수 있을지, 그것을 하기 위해 활용할 만한 프로그램과 사례는 무엇인지 등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단순히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지 질문이 많았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그걸 활용해 내 수업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실질적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고민의 수준도 한층 깊어졌다고 느끼고 있어요.

Q. 그런 고민에는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으세요?

수업에서 실제로 해봤고 반응이 좋았던 사례를 주로 공유하면서 온라인 수업



약력 손지선

- 양서중학교 영어교사
- 돌봄치유교실 운영진
- 유튜브 채널 <손쌤> 운영
- 2018 영어교육 관련 유공교원 교육부 장관 표창
- 2015 개정교육과정 영어과 교과서 집필(동아출판)
- 저서 『온라인 수업 어렵지 않아요』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학급경영 B to Z』 외



에서는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대개 선생님이 대면 수업일 적엔 말하면 아이들이 듣고 있다고 생각해 상호작용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아이들이 그 수업을 들을지 말지부터 선택할 수 있잖아요? 이 때문에 선생님도 '내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이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 아이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불러오고 싶은지'를 곰곰이 고민해 봐야 해요. 그래서 수업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고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프로그램은 수업이 아니라 도구, 매체잖아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쓰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지게 마련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고민에 앞서 아이들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지, 그 부분들에 대해 좀 더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수업과 학급경영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Q. 온라인 수업에 관해 소통하는 SNS 채널도 운영 중이라고요?

인터뷰 직전까지 하다 왔어요. 제가 운영하는 SNS가 몇 개 있는데요. 구글클래스룸 관련한 방도 있고, 학급경영과 영어과 수업 관련 방도 있어요. 모두 카톡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적게는 350명에서 많게는 3,000명이 함께하고 있어요. 요즘에도 많은 선생님이 이 방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데요, 새 학기가 다가오니 새해 올림증이 도져서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하는 분도 있고, 학부모님들과의 소통, 학급규칙, 학급경영까지 온라인 수업 외에도 다양한 고민과 의견이 수시로 공유되고 있어요. 여기서 저는 보통 지켜만 보고 있다가 그런 고민에 답변할 만한 자료를 종종 공유하는 정도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다른 선생님이 또 대화를 이어가고 소통이 확장되더라고요. 선생님들끼리 고민을 나누고 해결할 수 있도록 판만 깔아 드리는 거죠. 요즘 선생님들 새로운 것 배우는 데 엄청 열성적이에요. 사실 10년 동안 제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 말에 '아, 그런 것도 있어요?'라고 반응했다면 지금은 고개부터 끄덕이며 눈빛부터 달라요. 정말 열정이 넘쳐요. 얼마나 모두 다급하겠어요. 당장 수업을 해야 하니깐요.

Q. 선생님들이 알면 활용도가 높을 '온라인 수업 프로그램'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매우 다양하죠. 구글 설문조사는 많이들 사용할 것이고, 학습지를 디지털화시켜 주는 라이브 워크시트(liveworksheets)나 티처메이드(teachermade)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학생들이 온라인 환경에서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특히 티처메이드는 명령어를 외울 필요가 없어서 편리한 점이 있죠. 또 스마트 기기 화면을 공유하고 실시간 답안을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인 페어덱(peardeck)이나 학생들과의 상호작용에 효과적인 니어팟(nearpod)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동영상 중간에 퀴즈를 삽입할 수 있는 애드퍼즐(Edpuzzle)이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패들렛(padlet)도 진짜 좋은데요,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패들렛은 그나마 많은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어요. 보기에다 직관적

ONLINE EDUCATION





이고 아이들도 쉽게 할 수 있고 깔끔하게 구성돼 있어서 선생님들이 참 좋아해요. '쌤동네'에도 패들렛 연수 있지 않나요? 엄청 인기 있다고 들었어요. 특히 초등은 아기자기한 활동이 많은데 패들렛 하나만 배워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추천할 만한 프로그램예요. 이처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정말 다양한데요,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알아도 적절히 사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는 수업을 한 가지의 형태로만 운영하려 하지 말고 수업에 가장 잘 어울리는 활동을 찾아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물론 다양한 프로그램을 아셔야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으니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 배우는 것은 필요하고 많이 알아두면 좋아요.

Q. 끝으로, 앞서 온라인 수업을 해온 입장에서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온라인 수업에 있어 기기를 잘 다루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원점으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했던 수업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수업을 어떻게 온라인으로 구현해 볼지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오프라인 수업에서도 아이들이 즐거워했다면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반응을 보일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그런 반응을 확인하게 된다면, 선생님의 자신감도 달라져요. '내가 수업을 못 하는 게 아니라 낯설었을 뿐이네.',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하며 어느새 자신감이 붙고 나중엔 온라인 수업이 힘들게 느껴졌던 이유가 내 마음의 문제였지 기술의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사실,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참 단순한데, 낯설다 보니 어렵다 느낀 것이고 그만큼 우리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낮았던 것뿐이거든요. 제 신조가 '늘 해왔던 것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예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왔던 것을 새로운 형태로 담는 것뿐이니까 자신의 수업을 돌이켜 보며 아이들과 어떻게 소통하실지 생각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 그 부분이 없다면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겠죠.

인터뷰를 마치며 손지선 선생님이 재차 말했다. 컴퓨터를 못 다루는 50대 중반 선생님께서도 열심히 배우면서 시도하니깐 아이들이 그 모습에 '우리 선생님 정말 열심히 해요'라고 알아보고 응원하더라고. 기기에 익숙하지 않더라도 수업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실행력만 있다면 올 한해 설레고 멋진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손 선생님은 올곧은 눈빛으로 자신했다. ①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공감과 신뢰로 서로의 상황을 존중해야

글. 신건철 구로초등학교 선생님

쉽 없이 바뀌는 교육환경, 선생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행복한 선생님이 돼주세요. 교육의 주체인 선생님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들도 행복할 테니까요.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구로초등학교 신건철 선생님과 함께 찾아보세요.

행복한 교사가 되기 위한 마음가짐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내일을 예측하기 어려운 하루하루가 이어졌지만, 교사들의 노력으로 무사히 1년을 마무리했습니다. 손과 발이 묶인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교사를 둘러싼 다양한 관계(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와의 갈등은 여전히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온라인 수업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학부모와 비대면 면담이 증가했지만, 건강하고 실효성 있는 소통은 줄어들었습니다. 더불어 수업 방식과 생각의 차이로 인해 동료교사나 관리자와의 갈등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교사가 수업 피드백, 학년 내에서 수업 방식, 학급 내 교육과정 운영 등을 재량껏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에 대한 결정권이 보장되지 않다 보니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가중됐습니다. 2021학년도가 시작된 지금도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교사들의 마음 한구석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0년의 어려움을 반복하지 않고, 새 학기에 행복한 교사가 되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까요?

첫째, 무엇보다 공감과 신뢰가 중요합니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처럼 학생과 학부모들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일이면 등교하던 학교는 언제 등교할지 모르겠고, 유능한 교사들이 직접 가르쳐 주던 것을 간접적으로나 본인 스스로 깨우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점차 가중되고 있습니다. 교사, 학생, 학부모 모두 자기 결정권이 존중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불편한 감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평소라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서로



약력 신건철

- 서울구로초등학교 교사
- 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저서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공저)

를 믿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편한 감정으로 인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사와 학생, 학부모 관계의 핵심은 공감과 신뢰입니다. 모두 같은 목표를 갖고 있다는 공감, 학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신뢰, 자녀(학생)가 긍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신뢰. 이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무너진 공감과 신뢰를 회복할 시기가 됐습니다. 공감은 조건 없는 수용이 아닙니다. 공감은 상대방 감정의 불편함과 처지를 이해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말해주는 용기입니다. 상대방의 말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처지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고 존중해 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신뢰는 믿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계산적인 신뢰는 서로에게 바라는 바가 생겨 결국에는 신뢰가 깨지고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공감과 신뢰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화입니다. 제한된 상황과 시간에 더 많이 대화하고, 꼭 대면이 아니더라도 전화, 학급 플랫폼 등을 활용해 대화의 기회를 늘려야 합니다.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공감하고 신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서로의 상황(과제)을 존중해야 합니다.** 2020년도는 예전에 행하지 않았던 수업 방법,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년 내 또는 학년 간 새로운 갈등이 늘어난 해입니다. 교실 내에서 수업 방법과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권을 갖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던 교사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현실은 자율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서로의 다름이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서로 다른 온라인 수업 능력으로 인해 수업 방식을 결정하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더불어 자율이라는 이름을 걸었지만, 학교 구성원의 결정이 존중되지 않고, 하향식의 업무 전달이 이뤄지는 현실 역시 교사들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안전한 공간이어야 했던 학교가 교사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하고, 내일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낸 것이죠. 학교가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해주고, 안정감을 느끼며 능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상황(과제)을 존중해야 합니다. 더불어 실제 학생을 교육하는 교사의 자율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말로만 자율이라는 것을 벗어나 어려운 상황을 함께 공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는 학교가 돼야 합니다. 다름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서로 다름을 통해 새로움을 만들어 가는 원동력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협력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헤쳐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가 응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학교에 많은 어려움(도전 거리)을 주었지만, 이 어려움 또한 새로운 발전을 위한 원동력입니다. 많은 선생님의 노력으로 1년을 헤쳐왔던 것처럼 2021년도 역시 주어진 상황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찾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경험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듯이, 교사 역시 학생, 학부모, 동료교사,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공감과 신뢰를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서로의 과제를 존중하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면, 2021년 학교는 더욱 성장하고 행복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극한직업, 선생님을 부탁해’. 선생님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선생님의 2021년을 응원하며 이 책이 조금이나마 선생님께 힘이 되길 바랍니다. 

인공지능, 세상(A World)과 나(I)를 잇는다

글. 신태섭 경기 효행초등학교 선생님



최근 인공지능(AI) 교육이 화두다. 인공지능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융합교육 전공 과정이 개설됐고, 2021학년부터 초·중·고에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 사업이 시작된다. 여기저기서 인공지능 교육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인공지능이 무엇인지 학교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현장 교사들의 고민은 늘어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 교육도 퍼즐처럼 아이들과 하나씩 맞춰가면 된다고 말하는 선생님이 있어 인공지능 교육에 관해 물어보았다.

인공지능(AI) 교육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은 인간의 지능적인 행위를 자동으로 흉내낼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말한다(교육부 인공지능 교육 갈라잡이). 인공지능은 이미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알파고, 자율주행, 인공지능 비서, 챗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며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이고 나아가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인공지능을 바르게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능, 태도를 배우는 것이 바로 인공지능 교육이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어렵게만 느껴지고 나오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매일 마주하며 살고 있다.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친숙해질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할 기회를 주는 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상(A World)과 나(I)를 이어주는 교육이 바로 인공지능(AI)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약력 신태섭

- 경기 효행초등학교 교사
- 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교육 교사 연구회 회장
- 前 한국과학창의재단 인공지능(AI) 교육 입문과정 연수 강사
- 前 한국과학창의재단 초등 데이터 과학 전문연수 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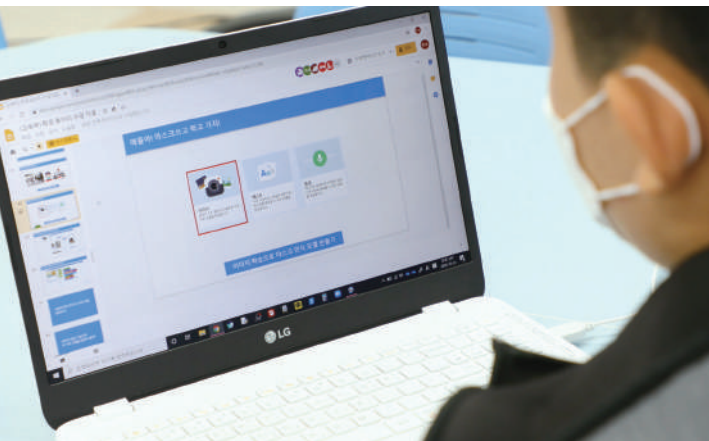
소프트웨어(SW) 교육 vs 인공지능(AI) 교육

선생님들에게 자주 듣는 질문이 소프트웨어 교육과 인공지능 교육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다. 때로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이제 자리 잡은 듯한데, 갑자기 또 인공지능 교육이냐고 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 글쓴이가 생각하는 차이점은 인공지능 교육은 데이터를 다루고 이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모델을 만들어 활용한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윤리에 대한 부분도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인공지능 교육을 위해 수학 교과서를 들여다보며 활동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데이터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기 위해서다. 물론 인공지능 교육은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소프트웨어 교육에서의 컴퓨팅 사고력과 프로그래밍 소양이 인공지능 교육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 교육을 기존에 해왔던 소프트웨어 교육과 별개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연장선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공지능(AI) 교육,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까?

인공지능 교육이 화두인 만큼 관심 있는 선생님들도 많고 관련 연수도 늘어나고 있다. 처음 접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수준에 맞는 연수를 통해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소양을 기르는 것이 좋다. 처음부터 머신러닝·딥러닝과 같은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퀵드로·AI for Oceans·티처벨머신과 같은 쉽고 재미있는 플랫폼을 활용해 인공지능을 가볍게 체험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아이들은 처음에 인공지능을 어렵게만 생각하고 전문가만 할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서는 체험과 놀이 중심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의 개념을 알고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 소양이 있는 고학년의 경우 실생활 문제를 인공지능을 활용해 해결해보거나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도 진행해볼 수 있다. 교사가 모든 것을 알아야만 아이들과 수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아직은 낯설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퍼즐을 아이들과 하나하나 채워가 보는 것이 어떨까? 미래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현장 파이터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응원한다. ①

SW AI 동아리 수업
영상 다시 보기



인공지능 활용 실생활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업.



“애들아! 마스크 쓰고 학교 가자!” 실생활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

아주경제 (2021. 01. 21)

테크빌교육-엠글리쉬 MOU... 개인맞춤 공교육 영어 만든다



에듀테크 기업 테크빌교육이 엠글리쉬와 국내 영어교육시장의 진출과 미래교육설계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우리나라 공교육 및 방과후학교 영어수업에서 활용 가능한 에듀테크 환경구축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플랫폼 및 콘텐츠, 교수학습모형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티처몰은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개인맞춤형 영어수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엠글리쉬(MGlish)'를 공교육 및 방과후학교 시장에 독점 판매하게 됐다. 양사는 국내 영어수업에 최적화되도록 제품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다. 엠글리쉬는 학습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털 학습 플랫폼(LMS)으로 유/초/중/고 교재의 단어/문장 콘텐츠를 기반으로 쉽고 빠르게 시험대비 콘텐츠까지 제공한다. 테크빌교육 이창훈 에듀커머스사업부 대표는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에듀테크 제품의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는 추세이고, 정부의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추진과 함께 공교육의 '수업혁신'을 위한 에듀테크 제품의 공급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상철 기자

매일일보 (2021. 02. 01)

테크빌교육, CJ ENM 다이아 티비 유튜버와 콜라보 컬러링북 선보



테크빌교육은 교사와 유튜버들의 콜라보 작업을 추진, 그 첫 결과물로 '크리에이터와 쌤이 함께하는 유튜브 놀이터 컬러링북 3종'을 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테크빌교육은 CJ ENM '다이아 티비'와 교사 및 학생 교육 크리에이터 발굴과 양성 지원을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교사도 양질의 러닝 콘텐츠를 생산하는 크리에이터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도를 추진해왔다. 그 결과의 하나로 탄생한 '크리에이터와 쌤이 함께하는 유튜브 놀이터 컬러링북 3종' 제작 과정에는 교육 및 놀이 콘텐츠 유튜버로 유명한 에그박사(에그박사Egg&Bugs), 유라(유라야놀자Let's play YURA), 애니

한(애니한TV)이 참여했다. 현직 초등교사로서는 참쌤스쿨과 다양한 교사 플랫폼에서 활동하며 책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송가람(가람쌤, 경남 호암초 교사), 이진주(참진쌤, 이천 한내초 교사), 이윤희(윤희쌤, 서울 금화초 교사) 선생님이 공동 참여했다. 2월 1일부터 판매 중인 컬러링북 3종은 각각 곤충, 자연친구, 한글을 주제로 제작됐다. 먼저 곤충 컬러링북 콜라보에 참여한 에그박사와 송가람 교사는 "평소 '곤충' 하면 징그럽게만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 강아지나 고양이와 마찬가지로 그들만의 삶이 있음을 생각해보고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재미있게 표현해 보았다"며 "에그박사와 생물들을 저마다의 색으로 칠하다 보면 곤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이 높아져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사 하략)

김동명 기자

전자신문 (2021. 02. 02)

설립 20년 맞은 테크빌교육, 교사·학생·학부모 연결하는 에듀테크 서비스 목표



“그때는 시장이 없다. 공교육 하면 망한다고 말했습니다.”이형세 테크빌 대표는 2001년 당시 이러한 시장에 주목하며 회사를 창업했다. 이 대표는 “수요는 있는데 시장이 없다”며 이듬해 ‘티처빌원격교육연구원’을 교육부 인가를 받아 설립했다. 이후 공교육 전문기업을 표방하며 성장해온 테크빌교육이 오는 5일 창립 20주년을 맞는다. 이형세 대표는 2일 “60만 교사 대상 원격교육서비스를 앞으로 600만 학생, 1,000만 학부모 서비스로 확대할 것”이라

고 포부를 밝혔다. 테크빌교육은 교사 원격교육원수원 ‘티처빌’을 중심으로 교사, 학생, 학부모도 이용할 수 있는 교육 전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목표다. 올해는 교사-학생-학부모로 연계되는 에듀테크 서비스 원년이다. (기사 중략) 지난해 티처빌연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면서 온라인 학습자가 크게 늘었다. 또 교사 중심 콘텐츠 오픈마켓 ‘쌤동네’를 열면서 새로운 가능성도 확인했다. 올해 교사 전문학습 공동체를 위한 북리닝 구독서비스 ‘쌤북’도 시작한다.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교사와 교육 지원 밀착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이 대표는 “야심차게 준비해온 인공지능(AI) 기반 교사를 위한 수업저작도구 ‘클래스메이커’를 올해 출시할 것”이라며 “수업을 준비하면서 필요한 맞춤형 자료를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기능으로 사용이 늘어날수록 데이터가 쌓여 서비스가 정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하략)

김명희 기자

에듀동아 (2021. 02. 05)

테크빌교육 ‘부모공감’, 부모 친화 어린이집·유치원 제휴서비스 선택



부모교육 전문기관인 부모공감이 “2021년을 맞아 차별화된 부모 지원을 위한 ‘NEW 부모친화어린이집·유치원’ 제휴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5일 밝혔다.

‘NEW 부모친화어린이집·유치원’ 서비스는 원에서 이루어지는 유아 지도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유치원과 부모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영유아의 변화와 성장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로 인해 원 부모들과 만남 및 소통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운영지원 시스템을 통해 자녀 양육에 꼭 필요한 정보와 팁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우선 학기별로 원 부모

를 대상으로 온라인 ‘부모자녀관계검사’를 진행, 개별 영유아의 기질과 발달에 기초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부모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연중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주제의 부모교육에 참여할 기회도 제공한다. 특히 이처럼 모델에 포함된 다양한 서비스를 어린이집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서 원 관리 시스템을 제공한다. (기사 중략) 부모공감 측은 “올해 1월부터 신학기를 준비하며 다른 원과 차별화된 운영 솔루션을 찾고 있는 전국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제휴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유아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모 참여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중”이라고 전했다.

서유정 기자

이제부터 전문적 학습공동체는 티처빌에서! 쌤들의 학습공동체, 쌤학공이 온다

글. 탁현호 티처빌사업부 책임



티처빌이 2021년 3월 선생님들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 '쌤학공'(쌤들의 학습공동체)을 오픈했다. 전문적 학습공동체(이하 전학공)가 점점 중요해짐에 따라 전학공에 필요한 다양한 혜택과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한 상황인데 앞으로 '쌤학공'이 이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보인다.

'쌤학공'을 소개합니다

티처빌이 교사들에게 제공했던 다양한 서비스들을 재가공해 전학공용 서비스로 구현했다. 지난 2020년 11월에 오픈한 북리닝 서비스 ' 쌤북 '의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1학점 직무연수 <성찰과 나눔이 살아있는 수업 공동체> 과정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교사는 본인이 선택한 1권의 도서까지 받을 수 있으며, 모임 구성원들끼리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과 다른 교사들이 작성한 운영계획서까지 볼 수 있게 됐다. 그야말로 티처빌이 가진 강점을 모두 모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교사들의 전학공 활동을 전폭 지원한다.

선생님의 학습공동체, 어떠신가요?

전문적 학습공동체란 공동연구, 공동실천, 집단성장, 학교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 학습조직으로 이미 대부분의 교사가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전학공에 참여해 활동하거나 이를 운영하면서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생각보다 많다. 한 설문에 따르면, 전학공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점으로는 ①충분한 활동에

필요한 시간 부족 ②형식적인 운영 ③한정된 주제와 어수선했던 운영이 있다.

그럼에도 학습공동체 참여가 필요한 이유는

공유와 연대의 힘은 강하다. 2020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코로나19로 학교는 많은 혼란을 겪었다. 이전에는 해보지 않았던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며 교사들도 큰 불안을 느꼈지만 전학공을 통해 동료 교사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교사들도 많았다. 함께 고민할 문제가 많은 학교에서는 1명의 교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같은 문제를 함께 모여 고민하면 각자가 가진 장점과 경험을 나누면서 성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모색할 수 있기에 전학공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선생님의 학습공동체, ' 쌤학공 '의 특징

'쌤학공'은 티처빌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전학공에 제공하는 것으로 다양한 혜택을 부담 없는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다. 북러닝 서비스 '쌤북'의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으며, 1학점 직무연수가 제공되지만 1인 50,000원으로 3인 이상의 모임인 경우에는 20%의 할인 혜택까지 받아 1인 40,000원에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쌤학공'에서는 모임 구성원들만 볼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을 만들 수 있고, 다른 교사들이 전학공을 운영하며 작성했던 문서들을 직접 볼 수 있다. 다른 교사들은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운영계획서와 활동보고서는 어떻게 작성했는지 보면서 팁도 얻고, 격무에 따른 업무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명사의 강연도 차별화 요소이다. 티처빌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명사들의 강연이 실시간 원격 강의로 제공되며, 실시간으로 운영되는 만큼 모든 교사가 참여하기 어려울 것을 대비해 여러 명사의 라인업으로 교사들의 수요를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이제 막 시작, 앞으로 더 보완해 나갈 ' 쌤학공 '

2021년 시작된 '쌤학공'은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받아 교사들에게 필요한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직까지 학교 안 전문적 학습공동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도 점차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 고민 중이다. 티처빌은 지금까지 교사들과 함께 공교육의 바른 미래를 지원하기 위해 힘 써왔다. 지금까지는 교사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많았지만, 이번에는 교사 공동체 대상의 서비스를 새롭게 시도한 것이다. 앞으로 티처빌은 개인뿐 아니라 공동체의 발전과 더 나은 교육을 위해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서비스를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활용되길 소망한다. ①



[축하메시지]

테크빌교육의 스무 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허승환 선생님

테크빌교육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개인적으로 티치빌은 교사로서의 제 인생을 바꾸고 선순환의 삶을 살게 해준 고마운 곳입니다.

2001년 티치빌 원격교육연수원이 개설되고 2002년 ‘아이들을 사로잡는 교실놀이’라는 과정을 통해 처음 강사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교사로서 30년 차에 다가섰고, 50대 교사로 살며 교사 인생에선 ‘가을’과 같은 시기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주년은 사람의 인생으로 봐도 정말 ‘상징적인 해’입니다. 지난 20년을 되새기고 새로운 도약의 20년을 준비하는 해입니다. 코로나19로 온라인 교육을 경험하며 많은 교사들이 원격연수를 대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사실 원격연수를 대하는 우리들의 태도와 닮았다는 자기반성을 하기도 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의 20년, 테크빌교육이 좀 더 ‘원격연수’뿐만 아니라 콘텐츠와 커뮤니티 기능을 대폭 강화해 교사와 교육 밀착 서비스를 해주길 응원합니다. ‘쌤동네’ 2.0서비스를 통해 많은 교사가 스스로 강의를 열어 성장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을 해주셨듯이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장소 등의 지원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테크빌교육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최태성 선생님

해피 버스 데이 투 테크빌!

20주년이 되었다고요? 와, 이제 성년식을 치르는 청춘의 기업이 되셨군요. 이제 청년 기업입니다. 20대는 좌충우돌의 시기라고 하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도전정신으로 푹푹 뭉쳐 20대를 힘차게 차고 나가 이 땅의 모든 선생님에게 새로운 시대와 비전에 대한 자극을 마음껏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기원합니다. 청년 테크빌, 당신의 청춘을 응원합니다. 저마다 상처 깊은 곳에 맑은 빛이 숨어 있다. 첫 마음을 잃지 말자. 그리고 성공하자.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우치갑 선생님

테크빌교육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교사와 교사를 연결하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티처빌이 있었기에 수업으로 고민하던 선생님들이 수업에서 행복을 맛보고, 공감과 소통이 바탕이 되는 학급운영으로 학생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나날이 성장하는 선생님 덕분에 학생과 학부모 또한 행복한 공교육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20주년을 넘어 100주년이 될 때까지 선생님들과 함께 행복한 공교육을 열어갈 테크빌교육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유진 사람과연구소

한 사람이 스무 살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모와 학교의 품을 떠나 사회에서 스스로 서고 함께 살아가게 되니까요. 교육이란 한 사람이 스스로 또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육을 위해 교사교육으로 노력해온 한 기업이 스무 살이 된다는 것 또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 그가 살아온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보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스무 살이 된 테크빌교육의 미래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축하합니다



조기성 계성초 선생님·스마트교육학회 회장

테크빌교육의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제가 교직을 시작한 게 2000년이고 올해 22년째가 되는데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테크빌은 저의 교직 생활과 함께 성장한 동료 같은 느낌입니다. 티처빌

을 통해 교직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연수를 듣고 성장했으며, 많은 선생님도 티처빌과 함께 성장했을 것입니다.

함께 연수도 만들고, 출판도 하고 서비스 기획도 하는 등 여러 일을 함께하면서 만난 테크빌 임직원분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 다운 높은 역량을 갖췄지만, 선생님들 앞에서는 겸손한 자세로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선생님들 편에서 함께 고민해 주었습니다.

다른 어느 회사보다 선생님 편을 들어주는 친 교사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테크빌교육은 연수 분야와 함께 선생님들이 좋은 수업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 쌤동네 ’, 학교에 꼭 필요한 물품들이 모여 있는 ‘ 티처몰 ’을 비롯해 미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에듀테크 제품을 선생님들과 함께 고민하면서 종합 에듀테크 기업으로 새롭게 변화하리라 기대합니다. 그동안 해오신 것처럼 선생님들과 함께한다면 분명히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즐거운 학교 서비스를 통해 공교육이 하기 힘든 다양한 수업을 만들고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함께하는 모습에서 확신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공교육의 파트너인 테크빌의 앞날에 축복을 기원하며 20년이 아닌 200년 이어지는 선생님들의 친구 같은 기업이 되길 기원합니다.





신건철 구로초 선생님·서울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선생님과 함께해온 테크빌교육이 올해로 스무 살이 되었습니다

☞ 교사의 성장을 돕는 책·연수·교구 등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테크빌교육의 20주년 생일을 축하드립니다. 첫 발령을 받고 학생과의 관계에 대해 고민할 때, 처음으로 접한 연수가 테크빌교육의 원격연수였습니다. 잘 모르던 시절 60시간을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출석 시험을 본다는 것도 모르고 4학점 연수를 신청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돌이켜 보면, 그때 배웠던 학생 상담 방법 덕분에 제가 교사로서 발전하는 밑거름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던 제가 이제는 테크빌교육과 인연을 맺고, 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입니다. 20년을 넘어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함께할 테크빌교육이 더 좋은 콘텐츠로 교사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최선경 서동중학교 선생님·대구실천교육교사모임 회장

☞ 티처빌연수원, 쌤동네(쌤모임, 쌤찾자, 쌤톡톡), 티처몰, 키즈몰, 즐거운학교 등 다양한 영역에서 선생님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같은 테크빌교육! 20번째 생일을 축하합니다! 테크빌교육과 인연을 맺고 지내는 동안 테크빌교육 가족들의 따뜻한 배려와 지원 덕분에 도서 출간, 원격연수 촬영, 고래학교 운영 등 개인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교사 콘텐츠 유료화, 쌤모임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대를 앞서가는 시스템을 발 빠르게 도입하고 있어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테크빌교육! 지금처럼 늘 선생님들의 친구 같은 존재, 비빌 언덕이 되어 주세요! 30주년도 함께 축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승승장구 기원합니다!



심재경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공공사업부 교육담당

테크빌교육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대한민국 교육 발전과 함께해온 테크빌교육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오늘날의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가의 빠른 속도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중요하게 떠오르는 것이 교육입니다. PBL, Flipped Learning 그리고 AI 등 다양한 학습 방법과 도구들은 정부와 기업, 학교와 학생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모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민국의 교육 베테랑인 테크빌교육의 미래역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의 다양한 경험과 테크빌교육 임직원들의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 그리고 역량이 대한민국 미래교육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테크빌교육 20주년 축하드리며 30주년 기념식도 기대합니다.

2021년 티처빌연수원 학사 일정

기수	학점	연수 시작일	연수 종료일	출석고사	이수증 발급
3기	4학점	04월 07일	06월 01일	05월 29일	06월 04일
	3학점	04월 07일	05월 11일		05월 12일
	3학점	04월 21일	05월 25일		05월 26일
	3학점	05월 06일	06월 08일		06월 09일
	3학점	05월 20일	06월 22일		06월 23일
	2학점	04월 07일	05월 04일		05월 06일
	2학점	04월 21일	05월 18일		05월 19일
	2학점	05월 12일	06월 08일		06월 09일
	2학점	05월 26일	06월 22일		06월 23일
	1학점	04월 07일	04월 27일		04월 29일
	1학점	04월 21일	05월 11일		05월 12일
	1학점	05월 06일	05월 25일		05월 26일
	1학점	05월 20일	06월 08일		06월 09일
4기	4학점	05월 26일	07월 06일	07월 03일	07월 09일
	3학점	06월 02일	07월 06일		07월 07일
	3학점	06월 16일	07월 20일		07월 21일
	2학점	06월 02일	06월 29일		06월 30일
	2학점	06월 16일	07월 13일		07월 14일
	1학점	06월 02일	06월 22일		06월 23일
	1학점	06월 16일	07월 06일		07월 07일

※출석고사는 4학점 연수에만 진행 ※연수 신청은 시작일 두 달 전부터 가능

혜택은 최대로 2021 티처빌 회원권

우리학교
단체로 신청하면 **10,000원!**



T코인으로
원하는 학점 조합
연수 신청 OK



포인트 연수원
/ 쌤동네 / 티처물
3년간 유효

책. 듣다. 쉽다.
월라 월라 오디오북
+ 클래스 2개월
무료 이용권

회원권 선택

2 학점 선물도 DREAM 회원권
110,300 → **75,000원**

32% OFF

2 학점 할인해 DREAM 회원권
94,000 → **60,000원**

36% OFF

4 학점 할인해 DREAM 회원권
191,000 → **100,000원**

48% OFF

4 학점 선물도 DREAM 회원권
216,500 → **120,000원**

45% OFF

이수지원금 100% 증정

우리 학교 5인(건) 이상 신청시



5 ~ 9인(건)
신세계 상품권 5천원



10인(건) 이상
신세계 상품권 1만원

스타강사들의 강의부터
교사를 위한 재테크, 학급경영,
심리 상담 연수까지-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모바일로 연수 받으세요!**



티처빌 앱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구글 PLAY스토어
※ 아이폰(iOS) 추후 오픈

신규 과정 안내



1학점

온라인 교실에서 노는 방법!
모두 다 알려ZOOM



2학점

조선시대관 타이캡슐, 조선왕조실록
신병주 교수의 조선기록문화유산



2학점

WOW! 놀이터 학교 만들기
어디서든, 어떻게든, 무엇으로든 놀자!

· 2021년 티처빌 신규과정 ·

명리학과 정신의학으로 나를 이해한다!

2학점

나를 들여다보는 시간, 명리학 공부법

양 창 순



강의 특징

- 명리학의 음양오행 분석으로 개인의 타고난 기질적 특성 이해
- 서양의 정신의학을 바탕으로 성장 배경이 개인의 성향에 미친 영향 분석
- 자신의 성향과 가치관이 형성된 배경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
- 국내 최초 정신의학과 주역을 접목한 베스트셀러 『명리심리학』의 저자가 설명

강의 개요

티처빌이 명리심리학 전문가 양창순 작가를 만났습니다. ‘사는 게 내 마음 같지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한 번쯤 자기 운명을 돌아봅니다. 예상치 못한 불행을 마주할 때,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는 ‘내 팔자에 문제가 있다’고 운명을 탓하기도 합니다. 정말 한 사람의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운명을 바꿀 방법이 알고 싶어집니다. 나의 운명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적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동양의 운명학에 바탕을 둔 명리학과 서양의 정신의학을 접목한 ‘명리 심리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녀는 명리 심리학으로 자기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방법을 전합니다. 결국,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일은 자신을 명확히 아는 데서 출발합니다. 본 연수를 통해 자신을 입체적으로 바라보고, 자신을 치유할 힘을 길러보세요..



실시간 수업에서 온라인 학급경영까지!

8시간

교사가 진짜 궁금해하는 온라인 수업과 학급경영



고 유 라 김 동 욱 이 지 영 차 원 준



신 윤 정 박 광 한 윤 효 성 오 소 정 손 지 선

강의 특징

- 온라인 수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용법과 실제 사례를 익혀 수업에 활용
- 효과적인 블렌디드 러닝을 위한 수업 방법을 설명

강의 개요

본 과정은 온라인 수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해 어떻게 수업을 해야 할지 걱정되고, 고민하는 선생님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온라인 수업에 대해 잘 몰라도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온라인 수업에 대한 노하우와 실제 사례를 수업과 학급경영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크게 나누어 기본적인 내용부터 담았습니다. 기본적인 프로그램 사용법 및 실제 사례를 통해 온라인 수업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온라인 수업에 대한 기본 소양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진짜 궁금해하는 온라인 수업과 학급경영, 지금 만나보세요.



입시전문가 박권우의 '눈'을 믿어라!

2학생 2022 대입 지원전략! 수박 먹고 대학 간다 (이해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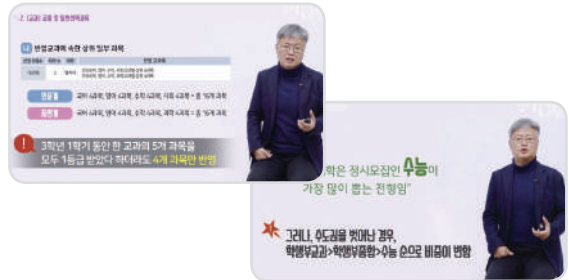
박 권 우

강의 특징

- 대학입시제도의 특징 및 주요 전형에 대한 분석 제공
- 학생의 장점을 살려 상황에 따른 대입 맞춤식 지원전략에 대한 가이드 제시

강의 개요

대학은 많고, 대학별 전형의 특성과 인재상의 요건들은 매우 다양합니다. 본 과정은 대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대입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 제공부터 다양한 대학의 전형 방법, 준비 노하우에 관한 지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입시 제도의 전반적인 흐름 및 주요 대학의 전형 방법을 파악해 학생의 진로진학 지도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 막막해하는 대입 지도 교사들의 혼란을 해소해주는 입시지도의 바이블을 확인해보세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 전면시행 대비!!

1학생 고교학점제의 시작! 진로학업설계



정 미 라 서 승 익 곽 충 훈 박 기 윤

강의 특징

- 고교학점제를 안정적 운영할 수 있도록 진로학업설계, 진로학업코칭, 과목선택지도 등 소개
- 고교학점제의 실천 방안 및 진로학업설계 활성화를 위한 4인 전문가 강의
-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운영 사례를 일반고, 직업고, 고 현장 선생님의 실제 사례 제공

강의 개요

고교학점제는 마치 대학생처럼 고등학생이 공통 과목을 이수한 후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 수업을 듣고 기준 학점을 채우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고등학생들이 학교가 짜주는 시간표에 따라 학급별로 나뉘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개별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교실을 옮겨다니며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자기만의 맞춤 시간표를 갖는 셈입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존중하는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은 고교학점제에 있어 필수과제입니다.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당 경로에 필요한 과목을 학년별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본 연수는 고교학점제의 시작을 준비하는 교사에게 추천합니다. 고교학점제 중 진로학업설계 중심으로 탐색해보고 실제 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를 안정적으로 도입해 심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무엇이든 물어보쌔"

타로상담으로 고민을 해결해 볼까요

글. 정무훈 광명북중학교 선생님

티처빌 직무연수 소개 <관계를 만드는 타로상담> TAROT



여러분의 고민은 무엇인가요? 업무·가정·인간관계 등 저마다 한 가지쯤 고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구에게 고민을 털어놓으시나요? 정작 상담을 받고 싶어도 상담이 부담스럽거나 내 마음속의 고민을 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타로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부담 없이 타로카드를 펼치면서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상담이 진행된다면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타로 상담을 쉽고 친근하게 알려 주는 정무훈 선생님의 일상 속에서 타로가 가진 상담의 힘과 매력을 만나보세요.

오늘도 타로와 함께 하루를 시작해서 일과를 마무리한다. 타로는 좋은 소통의 도구이자 문제 해결의 조연자이자 지친 하루를 위로해주는 친구 같은 존재이



약력 정무훈

- 광명북중학교 교사
- 교육청 타로상담 직무연수 강사
- 티처빌 타로상담 원격연수 강사
- 前 커리어넷 원격 상담교사
- 저서 『타로상담의 이론과 실제』

다. 매일 반복적이고 버거운 일상의 문제를 마주할 때마다 타로는 차분하게 나를 돌아보게 한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 라인홀드 니부어의 「평온을 비는 기도문」

🕒 AM 6:30, 타로와 함께 시작하는 하루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폰으로 오늘의 타로카드를 확인한다. 매일 아침 무작위로 선정된 타로카드가 타로 응용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된다. 오늘의 타로는 메이저 8번 힘(STRENGTH) 카드이다. 여인이 사자를 길들이는 그림의 카드다. 사자를 길들이는 것은 힘들고 위험하다. 오늘도 쉽지 않은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든다.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면서 오늘의 타로 해설을 찾아본다.



8번 힘(STRENGTH) 카드

키워드: 내면의 힘, 용기

문제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유연함과 인내심을 활용하라. 두려움은 상대방에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에 존재한다. 두려움의 실체를 인식하면 당신은 비로소 진정한 용기를 발견하게 된다.

‘오늘은 일어나는 일을 성급하게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야겠군. 나 자신을 믿고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해 보자.’ 타로 해설을 보니 자신감이 좀 생긴다. 지하철에서 나와 학교로 경쾌한 발걸음을 옮긴다. 상쾌한 아침 공기에 봄이 담겨 있다. 매일 아침 오늘의 타로를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면서 학교로 출근한다.

🕒 AM 8:30, 모닝커피와 타로가 함께하는 교무실

아침에 출근해 교무실에 들어서면 먼저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차 마실 준비를 한다. 그리고 중앙 테이블에 보라색 타로 배열 천을 펼친다. 선생님들이 출근하면 테이블에 둘러앉아 오늘의 타로를 한 장씩 뽑으며 차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선생님들이 한 명씩 교무실로 들어선다. 오늘의 카드를 가장 먼저 뽑은 주인공은 남 부장님이다. 그의 카드는 여황제(Empress).

“오늘 점심 먹고 커피는 내가 사야겠네. 타로 그림처럼 여유로운 모습은 내가 늘 원하는 모습인데...” 부장님이 활짝 웃으며 이야기한다.

“부장님이 여왕처럼 주말에 전원주택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네요.” 한 선생님이 정답게 대화를 이어간다.

“그러게, 나는 요새 주말만 기다려. 시골에 가 있으면 조용하고 한적해서 너무 좋아.”

“다음에 저희도 한번 전원주택에 초대해 주세요.”

“좋아, 자기들 언제든지 놀러 와.”

아침부터 선생님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부드러운 커피 향이 가득하다. 아침 교무실 타로 모임은 하루를 시작하는 걱정과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는 시간이 된 지 오래다.

PM 1시10분, 학생들과의 타로 상담 시간

급식실에서 점심을 얼른 먹고 올라와 보니 현서가 벌써 내 책상 옆에 앉아 있다.

“현서야, 오늘 선생님하고 상담하기로 했지? 점심은 잘 먹었어? 조회 시간에 현서를 보니 표정이 좀 어둡던데...” 현서는 고개를 푹 숙이고 말이 없다.

“현서야, 여기서 타로카드를 한 장 뽑고 같이 이야기해 볼까.”

교무실 책상 위에 타로카드를 펼쳐 놓는다. 현서는 조심스럽게 한 장을 뽑았다.

“현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카드를 뽑았는지 말해줄 수 있니?” 현서는 어렵사리 질문에 입술을 뻗었다. “요즘 친구들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결 방법을 알고 싶어요”

친구와의 사이가 고민이었던 모양이다.

“그렇구나, 현서는 오늘 은둔자 카드를 뽑았네, 그동안 누구에게 말도 못 하고 혼자 많이 힘들었겠다.” 현서는 카드를 보고 참았던 눈물을 흘리며 숨죽이며 흐느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 수 있니?”

“선생님 친구들이 무슨 오해가 있는지 저를 자꾸 따돌려요.”

“그렇구나, 그럼 방과 후에 친구들하고 한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어떨까?”

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는다.

“현서가 혼자서 힘든 시간을 견디느라 애썼어, 오늘 친구들과 대화로 잘 풀어보자.”

타로 상담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끝났다. 매일 점심시간은 우리 반 아이들을 타로 상담으로 만나는 시간이 됐다.



코로나19 이전에
진행된 타로상담 연수

🕒 PM 3시 40분, 고민을 해결하는 타로 집단상담

서먹한 분위기가 감도는 학생회실에 현서와 친구들이 둘러앉았다. 내가 먼저 말을 꺼낸다.

“오늘 여기서는 솔직하게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대화하면 좋겠어.”

“여기 펼쳐진 타로카드를 활용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해 보자.”

“타로 중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는 타로카드를 각자 골라 보렴.”

아이들은 펼쳐진 타로카드 중에서 한 장씩을 고르고 그 카드를 선택한 이유를 돌아가면 말했다. 아이들은 타로카드에 담긴 자신의 감정을 풀어내며 서로에 대한 서운함과 오해를 푸는 시간을 가졌다. 타로가 아이들의 어색했던 거리를 좁혀줬다.

🕒 PM 5시 10분,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하는 타로동아리

학교 선생님들과도 타로 상담교사 동아리 모임을 시작했다. 모임 진행 방식은 선생님들이 둘러앉아 한 명씩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질문 형식으로 말하고 타로카드를 한 장 뽑는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카드의 의미를 해석하고 어려움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도움을 주는 방식이다. 각자의 고민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공감하고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따뜻한 시간이다. 그다음은 각자 진행한 학생들과의 타로 상담 사례를 소개하고 힘들어하는 학생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고 있다.

🕒 PM 9시 30분, 타로로 나를 돌아보는 시간

따뜻한 감잎차를 마시며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쇼 변형 타로를 펼친다. 오늘의 타로를 뽑고 해설서에서 그 의미를 찾아본다. 오늘 뽑은 카드는 ‘놀이’ 카드이다.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적혀 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삶을 받아들이라. 편안한 마음으로 삶을 받아들이라. 불필요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라. 당신의 문제 99%는 삶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초하는 것이다. 즐겁게 놀아라. 생생하게 살아 있어라. 풍요롭게 살아라. 매 순간이 마지막 순간인 것처럼 살아라.

관계를 만드는 타로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셈)



그동안 나는 나에게 일어난 힘든 일들을 ‘문제’라고 규정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달렸다. 하지만 관점을 바꾸면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경험’이고 성장의 ‘기회’일 수 있다. 이제 나이가 들면서 타로와 삶에 대해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다. 나에게 타로카드는 지도 위에 놓인 나침반처럼 삶의 방향을 안내해 주는 소중한 존재라 할 수 있다. 📌

한 끼의 소중함과 환경을 생각하는 유튜브 먹방 채널, <먹스테이>

글. 허태련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선생님



외모만 보면 누가 허태련 선생님을 대식가라고 생각할까? 흔히 다이어트는 운동보다 식이요법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허태련 선생님은 30kg을 감량하면서 운동 외 식이요법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우리에게 당연한 한 끼가 어느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음식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환경보호를 위해서도 남기지 않고 맛있게 잘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더불어 급식이 중단된 시기, 제자들을 위해 몰래 도시락 배달을 하는 선생님의 이야기가 가슴 한편을 따뜻하게 한다. 오늘부터 우리도 음식 남기지 말고 맛있게 먹자.

집에서 학교까지 10km, 달리기로 출퇴근하는 선생님

약 10km의 학교를 달리기로 출퇴근하고, 줄리댄스(줄넘기&리듬)로 체중감량은 물론 남부럽지 않은 체력을 길러낸 교사 허태련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마라톤대회에 출전했고, 그 덕에 마라톤 전문잡지 표지모델로 활동하다가 줄넘기 다이어트 책까지 집필했는데요, 이후 여러 방송 매체를 통해 전 국민에게 건강과 다이어트, 줄넘기 운동방법에 대해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가라 식이조절 없이 운동으로만 30kg 감량

저는 약 30kg을 감량했는데요, 이를 들은 피디가 “줄넘기 운동 외 다른 식이요법도 있느냐?”고 물었고, 저는 태어나 단 한 번도 식단조절을 해본 적이 없고, 심지어 어릴 때부터 대식가여서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라면과 칼국수 등의 면은 3인분, 우유는 1,000ml를 단숨에 마셨다고 답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



1~3. 대식가인 허태련 선생님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라면과
칼국수 등 면은 3인분, 우유는
1,000ml를 단숨에 마신다.

4.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허태련 선생님이 원소에
바나나를 들고, 주머니에
초코파이를 넣고 달리고 있다.

라톤 사진처럼 한 손에는 바나나를, 양 주머니엔 초코파이를 가득 넣고 달렸을
정도라고 했더니 '어디 먹고 싶은 만큼 먹어보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돼 2006년 여고생들과 함께 순대 20인분을 먹는 방송을 찍었고, 그것이
먹방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꾸준한 운동, 혈관 나이 10대, 방송부터 유튜브까지

26년째 주 3회 이상 줄리(줄넘기&리듬) 운동을 해오다 보니 한 번의 요요현상
도 없이 살은 찌지 않고, 혈관 나이는 10대로 판정이 나왔으며, 건강인으로 자
주 방송국에서 불러줘 생활습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정직하면서 건강한 운동
방식과 다이어트 방법을 전파하고 있어서 카메라 울렁증이 비교적 덜하고, 영
상 촬영이 낯설지 않아서인지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수업에 잘
적응해 유튜브도 시작했습니다.



약력 허태련

- 인천대중예술고등학교 교사
- 인천시교육청 회복적생활교육
지원단, 인천시교육청 홍보단
- 〈허태련의 맥스테이〉 유튜브
운영
- 前 〈화성인x파일〉 '식탐여교사'
외 다수 출연
MeTV 〈허태련의
333음악줄넘기 다이어트〉 진행
- 저서 『허태련의 심상생생
줄넘기다이어트』
『언어문화개선 자료집』 고교
대표 집필(인천시교육청)

신입생 OT 브이로그를 시작으로 먹방 유튜브로

남자 고등학교 학생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입학식도 치르지 못한 신입생들에게
학교의 여러 장소와 일정 및 수업을 소개하는 오리엔테이션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어서 브이로그처럼 찍어서 올렸는데, 급식실에 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
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휴식시간에는 교내 청설모의 모습을 담은 영상과 키 성
장과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방법, 수행평가를 위한 농구 연습법 등과 함께 급식
실을 소개하고, 급식하는 장면과 함께 점심시간에 집에서 잘 챙겨 먹으라는
의미로 라면 3개를 먹기 시작했더니 저는 어느새 먹방 유튜브가 돼 있었습니다.



음식이 주는 행복을 깨달은 계기

학생들뿐만 아니라 2013년 <화성인X파일>에 식탐 여교사로 출연한 이후 아직도 이를 기억하는 많은 분으로부터 조언을 받으며 다양한 먹을거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먹는 것을 사랑하기로는 전국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쌀 한 톨, 고춧가루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싹쓸이로 먹는 저인데요, 음식이 주는 행복감과 소중함을 깨닫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급식 중단, 결석하겠다는 학생도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 다수의 학생이 설사와 복통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급식이 원인은 아니었지만 급식을 몇 달씩 중단하게 됐고, 모든 학생이 도시락을 싸 점심을 먹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급식을 지원받는 7~8명의 우리 반 학생을 포함해 전교에서 급식을 지원받는 학생들이 같은 식당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급식 지원이 티 나자 두 번 다시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굶는 일이 생기니까 반 친구들이 도시락을 2~3개씩 싸와 같이 나눠 먹었는데, 어느 날 지원받는 학생이 차라리 결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학생 몰래 선생님의 도시락 배달

이유는 “얻어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미안해서 못 오겠다”고요. 도시락을 챙겨올 형편이 안 되는 학생들인지라 그 말을 듣고 담임인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무단결석자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도시락통 10개 정도를 새로 구매해 매일 점심시간 전 식당에 가서 식사를 주문 후 도시락통에 담아 이동 수업시간에 몰래 교실에 들어가 학생 자리에 놔두고 왔습니다. 그렇게 결석생이 생기지 않게 하고, 성장하는 남학생들에게 충분한 영양을 공급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한 끼의 소중함, 남기지 않고 잘 먹는 먹방으로

못 배운 설움과 함께 배고픈 설움은 학생들에게는 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컸습니다. 매일 먹는 한 끼의 밥, 이것이 일반인들에겐 흔한 일이고, 일상이지만 이 한 끼를 못 먹는 학생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많이 먹어도 절대로 남기지 않고, 잘 먹는 것에 초점을 두고 생활하게 됐습니다. 또한 아파서 재활하거나 병상에 계신 분들이 먹지는 못하지만, 예전의 음식의 맛을 추억하는 분들도 있고, 다이어트 등으로 직접 많이 먹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대리만족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먹방을 더욱 즐기고 있습니다.

환경을 생각하는 의미 있는 먹방으로 발전

흔히 말하는 먹방이긴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건강과 운동과의 관계를 잘 설명하고,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음식쓰레기 줄이기, 일주일에 한 번은 채식하기, 텀블러나 장바구니를 사용하면서 일회용품 사용 자제하기와 재사용하기, 친환경 시대에 맞는 기후위기 교육을 하면서 기업에 과대포장 자제와 리필스테이션 등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기나 걷거나 달리기로 출퇴근하면서 체중감량과 건강한 생활습관 교육을 가랑비에 옷 젖어듯 지속해 세뇌(?) 교육하고 있습니다.

'먹스테이'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의 소망

예전 텀플스테이 등이 유행할 때부터 한적하고 공기 좋은 곳에 모여 밤을 지새우며 책을 읽고, 맛있는 것도 함께 나누면서 생활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좀 더 나이 들면 '북스테이'를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 채널을 약간 개정해 <먹스테이>로 정했고, 이 안에 카테고리를 '쿡cook스테이', '북book스테이', '줄jump rope스테이', '런run스테이', '톡talk스테이'로 나눠 많은 분과 소통하면서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더불어 환경까지 챙기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먹스테이>로 놀러 오세요. **T**



5.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에서 급식 3판을 순식간에 먹어버린 허태련 선생님을 촬영하고 있다.

6. 한 방송에 출연해 배부른 다이어트를 선보이고 있다.





교사 교육과정과 역량중심 수업의 모든 것 수업 잘하는 교사는 루틴이 있다

저자. 유영식
출판사. 테크빌교육

교육과정 담론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교사 교육과정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과학적·체계적으로 분석해 그동안 방향성만으로 논의됐던 교사 교육과정의 구체적 실체를 드러냈으며, 수업루틴과 연계한 실천방안을 제시한 책이다.

누구나 미래 역량을 키우는 수업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역량을 키우는 수업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아무도 명쾌하게 짚어주지 못하고 있다. 이 책은 역량중심 수업을 위해 수업을 재개념화하고 이를 실천하는 방법을 '루틴화'해 일상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했다. 또한 그동안 기기 활용 측면에서 주로 논의됐던 원격수업 담론을 벗어나,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적재적소에 배치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는 블렌디드 교육과정 설계와 온·오프라인 평가와 피드백을 상호보완적으로 설계하는 블렌디드 평가 관점에서 원격수업을 새롭게 다뤘다.



교육전문직원 전직, 교원 승진, 사무관 임용 등 '인사제도'의 미래 변화를 예측한다

교육자치 시대의 인사제도 혁신

저자. 김성천, 신범철, 홍섭근
출판사. 테크빌교육

현장의 관점과 연구자의 시선으로 교원 정책의 미래 방향성과 대안을 제시한 책이다.

교원의 급급·양성·자격·임용·연수·승진·평가 영역의 교육정책 및 교원 정책에 관한 쟁점 사항을 철저히 해부했으며,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이 그간 펼쳐온 교원 정책과 다양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교원 정책의 미래 방향과 대안을 깊이있게 제시했다.

교원 정책의 중심에는 교원 역량 강화라는 과제가 있다. 따라서 교원 인사제도는 교원 모두가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돼 가고 있다. 2020년 온라인 수업의 전격 도입, 고교학점제나 지역 소멸, 학령인구 감소 같은 시대적 상황은 학교와 교사의 역동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교사와 학교가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인도하는 교원 정책으로의 변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크리에이터와 쌤이 함께하는 유튜브 놀이터

애니한 + 윤희쌤의 한글 익힘 컬러링북

유라 + 참진쌤의 자연 친구 컬러링북

에그박사 + 가람쌤의 곤충 탐험 컬러링북

글. 애니한, 유라, 에그박사

그림. 이윤희, 이진주, 송가람

출판사. 테크빌교육

한글·자연·곤충을 테마로 초등교사와 유튜브버가 뭉쳐 컬러링북을 만들었다. 책마다 16종의 색칠공부가 담겨 있다. 한글·자연·곤충 공부도 하고, 유튜브도 보고(QR코드 탑재), 색칠도 해 보자. 3D로 놓고 생각하는 아이들의 취향에 맞춘 3종 컬러링북이다.

『한글 익힘』 컬러링북으로 우주와 꽃밭에서, 그리고 바다, 빙하, 공룡섬, 정글, 식탁, 놀이동산, 도서관, 열기구, 땅속에서 ㄱ, ㄴ, ㄷ 한글 미션을 수행해 보자.

『자연 친구』 컬러링북으로 산과 바다, 하늘의 자연 친구들을 만나고, 유튜브도 보고, 색칠도 해 보자.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미, 거미, 개구리부터 바닷속 물고기, 사막에 사는 여우, 북극에 사는 북극곰까지 다양한 동물을 만나 보자.

『곤충 탐험』 컬러링북으로 신기한 곤충들을 만나고, 유튜브도 보고, 색칠도 해 보자. 불소뽕구리, 폭탄먼지벌레, 장수말벌, 장수풍뎅이, 밀리패드 등 다양한 곤충을 만나 보자.

학교에 간 서니쌤



그림. 정은선
서울도성초등학교 선생님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웠던 2020년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고,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등교 수업을 시작해서도
학급의 절반만 등교했습니다.



모두 척척,
2021년!

그리고 종업식 날...



얼마 만나지도 못했는데 감사함을 표현하는
아이들 덕에 따뜻하게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2020년은 가고 202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새로운 일들이 많겠지만,

작년 보다 적응하여 더 나은 수업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적척 해내는

2021년!

SNS에서 '서니쌤'으로
활동하고 있는 초등교사
정은선입니다.

인스타그램에 웹툰
'학교에 간 서니쌤'과 교실 기록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에 간 서니쌤





“육아에도 봄날이 찾아 올까요?”

부모공감 1:1 육아코칭을 통해 막막했던 육아고민을 해결해보세요!

이용 대상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

진행 방식

부모자녀관계검사(온라인)
+
1:1 육아코칭(전화상담)

소요시간

부모자녀관계검사(15분)
+
1:1 육아코칭(50분)

부모자녀관계검사

- PC 및 모바일로 편하게 진행!
- 검사 후 결과도 바로 확인!
- 검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 육아솔루션을 통해 육아 자신감 UP!



1:1 육아코칭

- 전문 육아코치가 진행하는 1:1 맞춤 육아코칭!
- 쓱쓱! 쿡쿡! 짚어주는 결과상담!
-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자세한 결과상담 진행!

* 본 서비스는 부모자녀관계검사 결과를 토대로 코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사 진행 후 이용 가능합니다.



1:1 육아코칭으로 든든한 육아 지원군을 만나보고 싶다면?
문의 1644-7429 www.bumoschool.com



교사가 만들고
교사가 운영하는

- Upgrade! -



쌤동네 쌤모임 With ZOOM



쌤모임 제공 서비스 안내

모임 개설 편의



ZOOM 유료 계정 지원
다회차 모임 개설 가능

운영 서비스 지원



모임 알림 안내 발송
모임 운영 서비스 제공

각종 서류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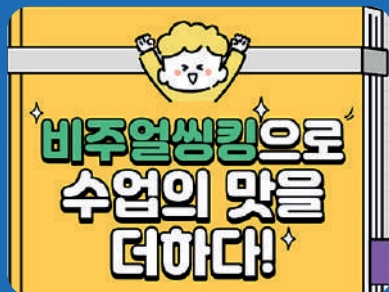
영수증, 수료증 자동 발급
강사 신고를 위한 제출 서류 제공

쌤동네 모임 소개



모임명 21년 2월 온라인
참쌤스쿨 아카데미

개설자 참쌤스쿨



모임명 비주얼씹킹으로
수업의 맛을 더하다!

개설자 우치갑 선생님



모임명 줌 기능을 익히면서
하는 온라인 놀이

개설자 나승빈 선생님

당갈아!치 쌤동네



👤 티처빌연수원

👤 쌤동네

👤 티처몰

👤 키즈티처빌

👤 즐거운학교

👤 부모공감



티처빌
공식 유튜브 채널



쌤구랑 쌤다Q
교사 유튜브 채널